

벽암 각성의 생애와 사상

- 李景奭 撰 「華嚴寺 碧巖堂 覺性大師碑文」을 중심으로

고영섭*

1. 서언
2. 임란과 병란의 참여
 - 1) 생애와 양관
 - 2) 강의와 저술
3. 사찰 중수와 산성 수축
 - 1) 사찰 중창과 불경 관각 및 불화 조성
 - 2) 남한산성과 적상산성의 수축
4. 철학의 수립과 사상의 전개
 - 1) 철학, 선교 일원의 계승
 - 2) 사상, 양종 교단의 통할
5. 조선후기 부휴계의 위상 확립
 - 1) 청허계와 부휴계의 공존 모색
 - 2) 부휴계의 주장과 제자 양성
6. 결어

1. 서언

조선은 건국 이래 새롭게 개신한 유학 즉 성리학을 정학(正學)으로 삼고 불교에 대한 억압 정책을 실시하였다. 유자들은 신유학 즉 성리학의 '종교적 기능'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불교의 신행에 따른 '관행적 기풍'을 근절할 수는 없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사원세력과 사원경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억압시책을 유지하였다.¹⁾ 하지만 오래지 않아 개국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불교학과 교수.

1) 金龍祚, 「허응당 보우의 불교부흥운동」, 보우사상연구회 편, 『허응당 보우대사연구』(제주: 불사리답, 1993), p.89.

의 주체였던 훈구(勳舊)와 외척(外戚)들이 권력의 핵심부를 장악하고 사회경제적 특권을 독점해 갔다. 그리하여 훈구 척신(戚臣)들의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그들은 백성들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해 갔다.

이에 권력형 부정 비리와 부정 축재가 가속화되면서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사회의 공도(公道)는 땅에 떨어졌다. 조선 중기의 친인척이었던 대윤(大尹, 尹任)과 소윤(小尹) 중 특히 소윤인 윤원형(尹元衡)²⁾은 명종 대에 이르러 권력을 오로지 하는 ‘권간’(權奸)이 되어 국왕의 통치권을 능멸할 정도였다.³⁾ 이 시기의 불교계 또한 ‘외유내불’(外儒內佛) 또는 ‘양유음불’(陽儒陰佛)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고려 말 이래 11 종으로 구성된 교단이 7 종으로, 다시 2 년 뒤에는 7 종이 선교 양종으로 통합되어 승정(僧政)을 총괄했던 승록사(僧錄司)가 폐지되고 선교 양종의 도회소(都會所)로 서울의 흥천사(興天寺, 중구 정동→ 정릉동)와 흥덕사(興德寺, 연희동→혜화동 1 번지)가 지정되었다.⁴⁾

조선 중기에 이르면 전기 이래 왕조 창업의 긴장감이 떨어지고 체제에 안주한 척신들이 득세하였다. 이렇게 되자 중종 이래 성리학의 이념으로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표방하던 사림(士林)들이 훈구 척신들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훈구 척신들 또한 사림들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여 연산군 대부터 명종 때까지 네 차례의 사화(士禍)⁵⁾를 일으켰다. 하지만 명종이 후사(後嗣, 後承)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척신들의 위세는 한풀 꺾였고 사림들이 다시 일어섰다. 그런데 척신들을 처리하는 방향을 놓고 사림들 내부에서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들은 동인과 서인으로 분립되었다.⁶⁾ 이러한 분립 상황에서 불교 교단도 이들 정치 지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조선불교를 지탱한 청허 휴정(淸虛休靜, 1520~1604)계의 정계 4 대 문파에 맞서는 부휴 선

2) 中宗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章敬王后 尹氏가 죽고 중종의 세 번째 왕비로 같은 坡平 尹氏 출신의 文定王后가 간택되었다. 이 때문에 서열상으로 전임 왕비였던 장경왕후 일족인 尹任, 尹汝弼 등을 大尹이라 했고, 후임 왕비인 문정왕후의 일족인 尹之任, 尹元衡, 尹元老 등을 小尹이라 하였다.

3) 한명기, 『광해군: 탁월한 외교정책을 펼친 군주』(서울: 역사비평사, 2000), p.39 참조.

4) 禪敎 兩宗을 합쳐 공인된 36개의 寺社에는 田地가 추가 지원되었고 승려의 정원이 확정되었다.

5) 연산군 때의 戊午史禍와 甲子士禍, 중종 때의 己卯士禍, 명종 때의 乙巳士禍 등 네 士禍가 대표적이었다.

6) 高榮燮(2), 『한국불교사연구』(서울: 한국학술정보, 2012); 高榮燮(3), 『한국불교사탐구』(서울: 박문사, 2015); 高榮燮(4), 『한국불교사연구』 1.2(서울: 씨아이알, 2019). 논자는 일련의 저술에서 고려 이전처럼 국가의 공식적 지원을 받는 ‘국가불교’에서 벗어나 조선불교는 유자들의 불교 억압정책에 대응하여 풀뿌리로 생명력을 지켜낸 ‘自立佛敎’ 내지 ‘自生佛敎’의 기반을 형성하였다고 보고 있다.

수(浮休善修, 1543~1615)계의 방계 7대 문과의 수장이었던 벽암 각성(碧巖覺性, 1575~1660)은 스승 부휴를 대신해 임진왜란에 참여한 이래 병자호란에도 참여하였다. 그 사이 그는 전국의 여러 사찰에 머무르면서 강의와 저술 및 순천 송광사, 완주 송광사, 합천 해인사, 보은 법주사, 구례 화엄사, 하동 쌍계사, 속초 신흥사, 안변 석왕사 등의 사원을 신창하거나 중창하였다. 또 광승(狂僧)의 무고로 인한 김직재(金直哉) 옥사사건에 연루되어 스승 부휴와 풀려난 이래 잠시 판선교도총섭(判敎都摠攝)으로서 봉은사 주지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어 벽암은 팔도도총섭(都摠攝)이 되어 남한산성의 축성을 감독하였고, 규정도총섭(糾正都摠攝)이 되어 적상산성(赤裳山城)의 수축과 사고(史庫)의 보호를 완수하였다. 그는 부휴계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그의 문하에 8대 문과를 배출하여 청허계와 함께 조선 후기 불교계의 주류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되는 인물이다. 이 글에서는 벽암 각성의 임란과 병란의 참여, 사찰 중수와 산성 수축, 철학의 수립과 사상의 전개, 조선 후기 부휴계의 위상 확립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벽암 각성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임란과 병란 참여

1) 생애와 양란

건국 이래 유교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표방한 이래 불교계는 억압의 시책을 감당해야만 했다. 태조와 세종의 교단의 구조 조정 이후 불교 자체를 위한 공식적인 국가행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행히 세조대에 이르러 8개 사원 중건 및 중창⁷⁾과 간경도감(刊經都監, 1461~1471) 설치를 통한 한문불전과 언해불전의 간행 등 일시적인 불사가 있었다. 하지만 이후 성종과 연산군 및 중종에 이르러 실시된 선교 양종(禪敎兩宗)의 폐종과 승과제(僧科制) 금지 및 도첩제(度牒制) 폐지와 『경국대전』 내의 ‘도승’(度僧)조 삭제 등 일련의 정책들을 통해 불교의 대외적 존재감을 무력화시켰다.⁸⁾

7) 세조는 회암산 檜巖寺, 월출산 道岬寺, 삼각산 正因寺, 왕성내 淨業院, 왕성내 圓覺寺, 오대산 上院寺, 금강산 楡岾寺, 낙산 洛山寺 등 8개 사찰을 중건 및 중창하였다.

8) 高榮燮(c), 「虛應 普雨의 불교 중흥」, 『한국불교학』 제56집, 한국불교학회, 2010; 高榮燮(4), 『한국불교사공구』1.2(서울: 씨아이알, 2019); 高榮燮(f), 「조선 후기 고승의 비석 건립과 문집 간행」, 『한국불교사연구』 제7호, 한국불교사연구소, 2014; 高榮燮(3), 『한국불교사탐구』(서울: 박문사, 2015), p.374.

명종의 즉위 이후 그 모후인 문정(文定)대비 윤씨가 섭정을 하면서 잠시나마 불교계는 부흥의 조짐이 일어났다. 불교 중흥의 꿈을 지녔던 대비는 유덕한 주지를 찾다가 노승 명곡(明谷)을 봉은사 주지로 발탁했다. 하지만 노승 명곡이 노병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그의 손제자이자 때마침 병석에서 일어나 양주 회암사에 머무르는 허응 보우(虛應普愚, 1510~1565)를 발탁하였다. 보우는 문정대비의 후원 아래 선교 양종을 일으키고 승과제를 복원했으며, 도첩제를 실시하고 도승조를 복원하였다. 그리고 봉은사를 선종본사로 하고, 봉선사를 교종본사로 삼았다.

이어 불교계는 봉은사에서 실시된 승과에서 청허 휴정(淸虛 休靜, 1520~1604)과 사명 유정(四溟惟政, 1544~1610)을 등용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약 15년 동안 교단의 부흥을 모색하던 대비가 명종 20년(1565)에 세상을 떠나자 보우는 제주도로 유배를 가서 제주목사 변협(邊協)에게 장살(杖殺)을 당하였다. 이에 불교 중흥의 기운은 꺾인 듯했으나 당시의 지식사회와 소통했던 휴정과 사명에 의해 불교계의 존재감은 명맥만 이어가고 있었다.

한편 훈구 척신들을 꺾고 주류가 된 사람들은 광해군이 태어나던 시절(1575, 선조 8년)에 이조정랑(吏曹正郎) 김효원(金孝元, 1532~1590)의 후임 자리를 놓고 다시 갈등을 일으켰다. 이들 주위에서 명종(明宗)의 비 인순왕후(仁順王后)의 동생이었던 외척 심충겸(沈忠謙)이 추천되자 사림 내부에서 그의 동생 심의겸(沈義謙)의 외척이었던 자신의 고모부 이량(李樑)을 조정에서 몰아낸 예를 들어 외척이라도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는 입장이 생겨났다.⁹⁾

이 때문에 정치권의 주류로 자리를 잡아가던 사람들은 ‘외척 배제’라는 원칙론을 고수한 ‘동인’(東人)과 심의겸 형제를 포용하려 했던 ‘서인’(西人)으로 분열되면서 붕당이 시작되었다.¹⁰⁾ 불교계 또한 척신들과 사림들의 패권에서 비롯된 정책 수립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16세기 후반을 전후하여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급변하였다. 그 영향은 조선왕조에 고스란히 미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동아시아 국제 전쟁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조선 역사를 이전의 중기와 이후의 후기로 가름하는 주요한 잣대가 되었다. 임란과 병란은 대외적으로는 명과 청의 교체로 이어졌으며, 대내적으로는 광해군과 인조의 교체로 이어졌다.

벽암은 스승 부휴에 이어 선조-광해군-인조-효종-현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는 임란과 병란에 몸소 참여하였고 남한산성과 적성산성을 축성하였으며, 사고(史庫)를 수호하였고 여러 불교 사원을 중창하였다. 그를 비롯한 불교 승려들의 역할은 막중하였지만 종래의

9) 한명기, 앞의 책, pp.40~41.

10) 高榮燮(2), 『한국불교사연구』(서울: 한국학술정보, 2012).

연구에서는 불교계가 산성 축성 등 각종 국가의 토목공사 수행에 노동력만 제공하였다¹¹⁾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다행히 최근에 이르러서야 불교사 연구자들에 의해 조선 후기 승려와 승군제에 대한 불교사적 의미가 조명되고 있어 균형적 역사 인식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¹²⁾

벽암은 8대 문과에 이르는 많은 제자들과 문도들을 배출하였고 입적 이후에 그의 영골(靈骨)은 조계산의 송광사, 두류산의 화엄사, 종남산의 송광사, 속리산의 법주사로 네 곳으로 나뉘어져 부도(方墳)로 세워졌다. 이들 네 곳에는 그의 행장을 담은 비문을 세웠는데 현재는 화엄사와 법주사 비문만 전하고 있다. 이들 비문들과 선행연구들에 의거해 벽암의 생애를 도표로 그려보자.

〈도표 1〉 벽암의 행장

연도	재위	나이	역 정
1575	선조 8	1	호서 報恩 출생, 김해 金氏 가문에 태어나다.
1584	선조 17	9	부친이 타계하다. 한동안 크게 앓다가 회복되었다.
1585	선조 18	10	華山庵 雪默和尚의 문하에서 수학하다.
1588	선조 21	13	寶晶老師에게 具足戒를 수계하고 출가하다.
1589	선조 22	14	스승 浮休를 만난 뒤 속리산, 덕유산, 가야산, 금강산 등을 遊歷하다.
1592	선조 26	17	壬辰倭亂이 발발하다.
1593	선조 27	18	四溟의 천거를 받은 스승 善修 대신 명나라 장수와 海戰에 참가하다.
1600	선조 33	25	스승 浮休에게 지리산 七佛庵에서 講席을 傳受받다.
1601	광해군 1	26	스승 善修와 순친 송광사 祖殿 및 東行廊을 중수하고, 天王門을 신축하다.
1612	광해군 4	37	誣告에 의해 스승 善修와 함께 투옥, 判禪敎都摠攝으로 봉은사 주석, 東陽尉 申翊聖과 교유하다.
1615	광해군 7	40	스승 浮休 善修가 입적한 뒤, 지리산 칠불암에 주석하다
1616	광해군 8	41	新興寺에 주석한 뒤, 대중 운집으로 밤중에 태백산 箭川洞에 入居하다.

11) 전영준, 「벽암 각성의 남한산성 축성과 사원 중창」, 『한국인물사연구』 제12호, 한국인물사연구회, 2009, p.235 재인용.

12) 김갑주, 「남한산성 義僧番餼의 종합적 고찰」, 『불교학보』 제25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89; 이봉춘, 「조선불교 도총섭 제도와 그 성격」, 『사명당유정』(서울: 지식산업사, 2000); 高榮燮(f), 「조선 후기 승군제도의 불교사적 의미」, 『한국사상과문화』 제72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4; ; 이종수, 「조선 후기의 승군제도와 그 활동」,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2); 김용태(a), 「조선후기 남한산성의 조영과 승군의 활용」, 『한국사상과 문화』 제78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5; 김상영, 「雷默 處英의 생애와 불교사적 위상」, 『불교연구』 제48집, 한국불교연구원, 2018.2.

연도	재위	나이	역 정
1617	광해군 9	42	청계산 淸溪寺에서 설법하다.
1622 ₁₃₎	광해군 14	47	완주 松廣寺에서 50 일간 화엄법회를 하고, 4 차 중창을 시작하다.
1624	인조 2	49	합천 海印寺 法寶殿(經板庫) 重營불사에 참여하다. 이어 8道 都摠攝으로 남한산성을 축성하다. 보은 法住寺를 중창하다.
1627	인조 5	52	南漢山城 축성을 완료하고, 報恩闡教援助國一都大禪師란 직함을 下賜받다.
1630	인조 8	55	구례 華嚴寺의 대웅전 등 일부를 중수하다.
1632	인조 10	58	하동 雙溪寺를 중창하다.
1636	인조 14	62	구례 華嚴寺 중수 공사 일부를 마치고, 완주 松廣寺 중창을 마쳐 대가람을 조성하다. 丙子胡亂이 발발하다. 전국 사찰에 檄文을 보내어, 義僧軍 3 천을 이끌고 복상하다. 『禪源圖中決疑』와 『參商禪旨』 등을 저술하다.
1640	인조 18	66	하동 雙溪寺를 중수하다. 8 월에 糾正都摠攝으로 赤裳山城을 수축하고 史庫를 보호하다.
1641	인조 19	67	합천 海印寺 에 주석하다가, 일본 파견 教旨를 수행하러 상경하다가 병으로 사임하다. 백운산 上仙庵에 주석하다.
1642	인조 20	68	寶蓋山에서 法席을 차리고, 潛邸의 孝宗에게 華嚴禪旨를 전수하다.
1644	인조 22	70	완주 松廣寺 대웅전을 중건하다.
1646	인조 24	72	동학인 熙彦과 속리산 法住寺에 은거하다.
1648	인조 26	74	구례 華嚴寺에 은거하다.
1649	인조 27	75	구례 華嚴寺를 선종대가람으로 승격하다.
1651	효종 2	77	속초 神興寺 중창불사를 지휘하다.
1660	현종 1	86	세납 86 세, 법랍 72 세로 입적하다.
1663	현종 4		華嚴寺 碧巖堂 覺性大師碑 (李景奭 찬술)
1664	현종 5		法住寺 碧巖堂 覺性大師碑 (鄭斗卿 찬술)

이경석과 정두경이 찬술한 비문을 통해 우리는 벽암의 생평을 위의 도표와 같이 재구성해 볼 수 있다. 벽암의 비문은 네 곳에 세워졌지만 현존하는 것은 이경석이 찬술한 화엄사와 정두경이 찬술한 범주사의 두 비문뿐이다. 이 때문에 그의 저술이 의례집 이외에 현존하지 않기에 그의 사상을 재구성하기는 쉽지 않다.

13) 최연식, 「완주 송광사의 창건 배경 및 조선후기 불교 문파와의 관계」, 『보조사상』 제47집, 보조사상연구원, 2017, pp.132~167. 필자는 벽암이 제자들을 이끌고 완주 송광사 개창불사에 참여한 때는 낙성한 지 10여년이 지난 1640년이며, 이때 낙성을 축하하는 화엄법회를 연 것으로 보고 있다.

벽암의 자는 증원(證圓)이며 호는 각성이다. 벽암은 그의 호이고, 호서의 보은(報恩) 사람이다. 속성은 김해 김씨이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벼슬을 하였다고 한다. 벽암의 부친은 일찍이 현의 서쪽에 집터를 골랐다. 관상을 보는 자가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대사문(大沙門)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마침 어머니가 자식이 없어 함께 몸을 정결히 하고 북두칠성에게 기도를 드렸다. 꿈에 오래된 거울(古鏡)을 보고 임신하여 벽암을 낳으니 만력 을해년(1575) 12월 정해일이었다.¹⁴⁾

자식이 귀한 집안에서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벽암은 난 지 얼마 안 되어 이미 출가를 하면서 큰 수행자가 될 것이라는 예견을 보였다. 「화엄사비문」은 출가를 향한 그의 미래를 암시해 주고 있다.

벽암은 나면서부터 풍모와 기골이 서리와 같이 엄정하고 눈빛이 번개불같이 빛났다. 그는 부모에게 효도를 지극히 하였으며, 어려서도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벽암은 9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몸이 상했다가 겨우 나았다. 벽암은 어머니와 다시 이별을 하고서는 두루 깨달은 바가 있어 드디어 화산(華山)으로 가서 설묵(說默)화상에게 참례하고 스승으로 섬겼다. 벽암은 14세에 머리를 깎고 보정(寶晶)노사에게 구족계를 받았다.¹⁵⁾

벽암은 9세에 아버지를 여의면서 처음으로 생사의 문제에 부딪혔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의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큰 충격을 주었다. 벽암은 무상의 도리를 나름대로 체득한 뒤 어머니를 떠나 화산으로 가서 설묵 화상을 스승으로 섬겼다. 이어 그는 14세에 보정 노사에게 머리를 깎고 구족계를 받았다.

부휴화상이 화산에 이르러 벽암을 보고 남다르게 여기고 진전(眞筌, 선의 진수)을 권면하였다. 이에 일찍부터 그는 부휴대사를 좇아 속리산(俗離山)에 들어갔으며, 이후 덕유산(德裕山), 가야산(伽倻山), 금강산(金剛山) 등의 명산을 두루 다녔다. 벽암은 날마다 경전을 읽는 것이 이로부터 계속 이어졌고 잠시도 놀지 않았다.¹⁶⁾

14) 李景奭 撰, 「華嚴寺 碧巖堂 覺性大師碑文」, 權相老 撰, 『韓國寺刹史料』 권상(조선총독부, 1911);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권상(서울: 신문관, 1918), pp.248~252; 조선총독부 편, 『朝鮮金石總覽』 권하(서울: 아세아문화사, 1919; 1976), pp.916~920; 李智冠 撰, 『한국고승비문총집: 조선조 근현대』(서울: 가산문고, 2002).

15) 李景奭 撰, 「華嚴寺 碧巖堂 覺性大師碑文」, 이지관 撰, 『韓國高僧碑文總集』(서울: 가산연구원출판부, 2000), pp.174~177.

설목과 보정에 이어 부휴를 만난 벽암은 그를 평생의 스승으로 섬겼다. 그는 부휴를 따라 속리산에 들어간 뒤 덕유산, 가야산, 금강산 등의 명산을 다니며 경전을 숙독하였다. 벽암의 교학 공부는 대부분 이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선조 25년(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당시 화엄사에서는 승군을 조직하여 전쟁에 적극 참전하였다.

당시 주지였던 설홍(雪弘)은 승군 300 여명을 규합하여 호남 일대로 진격하는 일본군과 유곡(楡谷)의 석주진(石柱鎭)에서 맞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일본군은 화엄사에 들이닥쳐 전각 500 여 칸을 소각하였다. 이 때 장육전(丈六殿, 나중의 覺皇殿)에 봉안했던 화엄석경(華嚴石經)도 불에 타버렸다.

화엄사 출신 자운 처관(慈雲處寬)은 이순신(李舜臣)의 좌수영(左水營) 수군에 들어가 부장으로 해전에 참여하였다. 그는 이 때 전공을 세워 대선(大選)의 승계(僧階)를 얻고 선교관(禪敎判)의 승직(僧職)을 얻었다.¹⁷⁾ 윤눌(潤訥)이라고도 알려진 처관은 1593년에 호남 일대의 의승 300 여명을 여수 흥국사에서 규합하여 수군에 참여한 뒤 웅천(熊川) 전투부터 몸소 참전하였다. 전란이 끝난 뒤에 선조(宣祖)가 그의 전공을 치하하기 위해 백미 600 여 석을 내리자 그는 전몰자 위령을 위한 수륙재를 열었다. 이어 윤눌(처관)은 화엄사, 흥국사, 실상사 등의 중수불사에도 참여하였다.¹⁸⁾

임진란이 일어나자 송운 유정(松雲惟政)이 관동(關東)에서 의승군을 불러 일으켰다. 벽암은 부휴선사를 찾아가 적을 피해 산에 있을 때에도 반드시 경을 손에 들고 어려운 곳을 물었다. 계사년(1593)에 송운(松雲)이 조정에 부휴(浮休)를 천거하자 그는 진중에 격문을 내렸고 자신을 대신해 벽암을 보냈다. 대사는 또한 전장에 나아가 명나라 장수를 따라 해전(海戰)에서 왜적을 크게 무찔렀다. 그러자 당시 명나라 사람들이 대사를 보고 크게 칭찬하였다.¹⁹⁾

벽암은 스승 부휴를 대신해 명나라 장수를 따라 해전에 참여하여 왜적을 크게 무찔렀다. 이에 명나라 장수 이종성(李宗誠)이 1595년에 해인사에서 벽암을 만나 ‘그대는 훌륭한 제자’라고 칭찬하였다. 그 뒤 광해군 4년(1612)에 벽암은 김경립(金慶立)이 군역을 회피하기 위하

16) 李景奭 撰, 위의 글, 위의 책, pp.174~177.

17) 伽山智冠, 「禪敎兩宗智利山華嚴寺事蹟碑銘」(2007); 화엄문도회, 「화엄사와 導光大禪師」(화엄문도회, 2008), pp.7~18.

18) 伽山智冠, 위의 비명, p.10; 김용태, 앞의 논문, 재인용, pp.384~385.

19) 李景奭 撰, 「華嚴寺 碧巖堂 覺性大師碑文」, 이지관 편, 『韓國高僧碑文總集』(서울: 가산연구원출판부, 2000), pp.174~177.

여 어보(御譜)와 관인(官印)을 위조한 것이 발각되면서 시작된 김직재(金直哉) 옥사사건의 무고를 받아 스승 부휴와 함께 서울의 감옥에 갇혔다.²⁰⁾

광해군 때에 옥사(獄事)가 일어 부휴선사가 요승이라고 무고를 받자, 대사가 함께 서울에 들어갔다. 광해군이 두 대사를 보고 비범하게 여겨서 부휴선사를 풀어주고 산으로 돌려보냈고, 대사를 봉은사(奉恩寺)에 머물게 하여 판선교도총섭(判禪敎都摠攝)으로 삼았다. 많은 공경(公卿) 사대부들이 그와 함께 하였으며, 동양위(東陽尉, 申翊聖)와 특히 사이가 좋았다. 얼마 안 되어 벽암은 남쪽으로 돌아갔다.²¹⁾

김직재 옥사사건은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정인홍(鄭仁弘)과 이이첨(李爾瞻) 계열의 대북파가 유영경(柳永慶) 계열의 소북파를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소북파 인사들 1백 여 명이 죽임을 당하였다. 왕옥(王獄)에 갇힌 부휴는 선수의 휘하에 있던 의승수군(義僧水軍) 승대장(僧大將) 자운 삼혜(慈雲三慧)와 함께 광해군에게 국문을 받았다.²²⁾ 결국 부휴와 그 자리에 있던 벽암은 광해군의 국문에 “기개가 크고 당당하고[氣宇] 언변을 논리 정연하게” 말하였다. 이에 광해군은 부휴가 죄가 없음을 알고 이튿날 내전 안으로 불러들여 도의 요체를 물어보고 매우 기뻐하며 후한 예물을 주었다.²³⁾

벽암도 부휴와 함께 국문을 당하였는데 이관(理官, 瑑璨)은 부휴와 벽암이 결박당해 있었지만은 ‘이연(怡然)히 흔들리지 않았으므로’ 이들을 각기 ‘큰부처’와 ‘작은 부처’라고 하였다. 광해군은 이들이 ‘도의 기운이 뛰어나고, 그 말이 곧고 바른 것’을 보고는 결박을 풀고 한동안 문답을 한 뒤에 매우 기뻐하면서 비단가사 두 벌을 나누어 주고는 그 영역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20) 高榮燮(d), 「광해군의 불교인식」, 『한국불교사연구』 제2호, 한국불교사학회 한국불교사연구소, 2012.2, p.253.

21) 李景奭 撰, 「華嚴寺 碧巖堂 覺性大師碑文」, 이지관 편, 『韓國高僧碑文總集』(서울: 가산연구원출판부, 2000), pp.174~177.

22) 高榮燮(d), 앞의 글, p.254.

23) 白谷 處能, 「浮休堂善修大師碑文」, 이지관 편, 『韓國高僧碑文總集』(서울: 가산연구원출판부, 2000), p.79. 광해군은 이들에게 “자주빛 금란 가사[紫欄方袍] 한 벌[領], 푸른 무늬 비단 장삼[碧綾長衫] 한 켤(衫), 녹색 비단 겹저고리[綠綺重襦] 한 습(襲), 금강석 구슬[金剛數珠] 한 켤(串)과 그 밖의 갖가지 보배” 등 후한 예물을 주었다.

인조(仁祖) 때에 남한산성을 축성하려고 하자 의논하는 이들이 임금에게 아뢰자, 대사를 불러들여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으로 삼았다. 승려들을 거느리고 3년 동안 축성을 감독하고 일을 마치자, 인조는 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라는 호와 의발(衣鉢) 및 석장(錫杖)을 하사하였다.²⁴⁾

그 뒤 인조 14년(1636)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벽암은 화엄사에서 ‘임금과 왕실에 대해 충성을 다하는’ ‘근왕’(勤王)을 위해 의승 3,000 명을 소집하여 항마군(降魔軍)을 조직하고 승대장(僧大將)이 되어 출전하였다. 당시 인조는 “항마군이 호남의 관군과 ‘사슴을 잡을 때 사슴의 뒷발을 잡고 뺨을 잡는다’는 기각지세(倚角之勢)를 이루어 “의(義)를 내세워 원조한다”는 전언을 받고 가상히 여겼다고 전한다.²⁵⁾

그러나 벽암은 북으로 진격하는 중에 인조가 남한산성을 나와 잠실의 삼전도(三田渡)에서 ‘삼궤구배’(三跪九拜)의 예로 청(淸)나라 황제에게 항복하여 전란이 종식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통한의 눈물을 삼키며 지리산으로 되돌아갔다. 당시 삼남의 의병들도 남한산성을 구하러 오다가 이 소식을 접하고 통한의 울음을 머금고 되돌아갔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나라를 중화의 황제국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義理)와 존주(尊周)의 명분을 강조하여 자존심을 회복하고 민속의 결속을 도모하였다. 불교계 또한 정통론에 입각한 법통을 정립하고 존명(尊明)과 춘추대의(春秋大義)를 강조하는 시대사조에 부합하였고 국왕권 수호와 국가의 안정을 위해 기원하였다.²⁶⁾

당시 남한산성의 팔도도총섭을 역임하고 승장으로 활동했던 벽암은 이미 조야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1640년 전라도 관찰사 원두표(元斗杓)가 인조에게 상소(奏達)하자 왕은 벽암에게 규정도총섭(糾正都摠攝)의 인수(印綬)를 내렸고 그는 무주 적상산성의 사고 수호를 맡았다.²⁷⁾ 그러나 당시 승려들의 주청에 의해 다시 송광사로 옮겨서 교계의 수령(敎魁)이 되었고 이듬해에 해인사로 물러나 있었다. 이때 인조의 부름을 받고 일본에 사행(使行)으로 가려고 상경하다가 병이 생겨 사양하였다.

24) 李景奭 撰, 「華嚴寺 碧巖堂 覺性大師碑文」, 이지관 편, 『韓國高僧碑文總集』(서울: 가산연구원출판부, 2000), pp.174~177.

25) 白谷 處能, 「賜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行狀」, 『大覺登階集』 권2(『한불전』 제8책, pp.329~331).

26) 김용태, 「조선후기 華嚴寺의 역사와 浮休系 전통」,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2권 1호, 역사문화학회, 2009, p.385.

27) 『인조실록』 권39; 인조 17년 10월 8일(辛卯); 『인조실록』 권40. 인조 18년 5월 21일(辛丑).

1642년에는 경기 연천의 보개산(寶蓋山)에서 법석을 열었다. 평안도 관찰사 구봉서(具鳳瑞)가 그의 도예(道譽)를 높이 평가해 묘향산(妙香山)에 맞아 들었다. 이때 봉림대군(鳳林大君, 뒷날 孝宗)이 평안도 안주(安州)에서 벽암을 만나 화엄의 중요를 논하자 크게 칭찬을 받았다. 이 인연으로 국왕이 된 효종 1년(1650)에 벽암이 머물던 화엄사를 '선종대가람'으로 지정하고, 연성군(延城君) 이시방(李時昉)에게 벽암의 안부를 여러 차례 묻기도 하였다.²⁸⁾

벽암은 만년을 화엄사에서 보내다가 현종 1년(1660)에 입적하였다. 절의 동쪽 고개에서 다비식을 거행할 때는 1만여 명이나 전례 없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다비 후에는 백색의 사리 3 덩이 나왔다. 벽암이 중창에 관여한 지리산 화엄사, 조계산 송광사, 종남산 송광사, 속리산 법주사에 영골(靈骨)을 나누어 탑을 세우고 화엄사와 법주사에 각기 비를 세웠다.²⁹⁾

벽암은 청허계에 대응하는 부휴계의 7대 문파 중 하나이면서 그를 중심으로 8대 문파를 거느릴 정도의 수장이었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에 이르러 벽암계는 700 여명에 이르러 청허계에 필적할만한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임란과 병란에 몸소 참여하였고, 남한산성과 적성산성을 축성하였으며, 사고(史庫)를 수호하였고, 수많은 불교 사원을 중창하였다.

불교 안팎에서 큰 역할을 하였던 벽암의 위상은 입적 이후 그를 기리기 위해 지리산 화엄사, 조계산 송광사, 종남산 송광사, 속리산 법주사에 그의 사리를 봉안한 부도탑을 세우고 각기 비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이들 부도탑은 모두가 그를 더 기념하고 기리기 위한 탑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그의 문파는 송광사와 화엄사 등지를 중심으로 번창하였다.³⁰⁾

2) 강의와 저술

벽암의 첫 강의는 하동 쌍계사의 칠불암에서 병 든 스승 부휴의 강의를 대신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이 강의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널리 알렸다.

28) 白谷 處能, 「賜報恩闍教圓照國一都大禪師行狀」, 『大覺登階集』 권2(『한불전』 제8책, p.329).

29) 李景奭 撰, 「華嚴寺 碧巖堂 覺性大師碑文」, 이지관 편, 『韓國高僧碑文總集』(서울: 가산연구원출판부, 2000), pp.174~177. 이들 네 곳과 달리 白谷 處能이 지은 碧巖의 「行狀」에는 지리산 화엄사, 조계산 송광사, 속리산 법주사는 그대로이지만 종남산 송광사 대신에 伽倻山海印寺에 탑이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다.

30) 高榮燮(4), 앞의 책, p.98.

경자년(1600)에 칠불난야(七佛蘭若)에서 하안거를 하였는데 부휴가 병들게 되자 강석(講席)을 대사에게 넘겨주었다. 대사는 사양하지 못하고 좌단에 올라 토론하니, 이에 현풍(玄風)을 크게 떨쳤다.³¹⁾

이처럼 벽암은 대강을 맡은 첫 강의에서 현풍을 크게 떨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병오년 가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사도(謝徒)와 대중을 떠나 속리산의 가섭굴(迦葉窟)에서 천도재를 올리고 복을 빌었다. 다른 사람이 견디지 못할 만한 일도 참을 수 있었으므로 부휴 문하에서 20 여년 동안 학업하고, 입실(入室) 제자로서 법을 전해 받았다. 계행이 지극히 뛰어났고, 인연에 따라 욕심 없이 담박하였다. 곡기를 끊었으나 배고프지 않았고, 밤을 새웠으나 잠자지 않았고, 늘 여위고 쇠약한 몸에 허름한 옷을 입었다. 방장실에서 결가부좌를 하니 배우러 오는 자가 구름처럼 모여들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졌다. 스스로 세 가지 잠언(箴言)을 지어 도제(徒弟)들을 경계시키기를, 생각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四不妄],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며[面不愧], 허리를 구부리지 않도록[腰不屈] 하였다.³²⁾

부친의 죽음으로 무상을 체험하면서 출가를 결심하였던 벽암은 모친의 죽음을 맞아 몸소 천도재를 치르고 복을 빌었다. 이어 그는 부휴 문하에서 20 년을 시봉한 뒤 비로소 입실 제자로서 법을 전해 받았다. 벽암은 계행을 잘 지켰고, 인연에 따라 욕심이 없이 담박하였다. 그는 곡기를 끊었지만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고, 밤을 새우며 잠을 자지 않았다. 늘 야위고 쇠약한 몸에 허름한 옷을 입을 정도로 검소한 살림살이를 유지하였다. 특히 그는 세 가지 잠언을 지어 생각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며, 허리를 구부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배우러 모여 들었고 불법이 널리 퍼졌다.

신령스런 구슬(神珠)이 한번 빛나니 고요한 물에 광채 일렁인다. 화엄(華嚴)을 엄숙하게 외우니 큰 악귀가 물러난다. 정토(淨土)에 찍은 육신을 문으니, 요망한 도깨비가 잡자기 없어진다. 심지어 맹호(猛虎)가 길을 호위하고, 길이 든 갈까마귀가 어깨에 모여들어, 닭은 다시 살아 보은할 줄 알고, 물고기는 그물을 불사르자 고맙게 생각했다. 날고 달리는 동물도 오히려 교화하였는데 하물며 인간에 있어서랴! 여러 산사를 창건하거나 보수하였는데 쌍계사(雙

31) 李景奭 撰, 위의 글, 위의 책, pp.174~177.

32) 李景奭 撰, 앞의 글, pp.174~177.

溪寺)의 동찰(東刹), 화엄사의 거대한 중창, 송광사(松廣寺)의 가람 같은 것이 그 가운데 큰 것이며, 나머지는 생략한다.³³⁾

벽암은 평소에 ‘선법’[神珠]과 ‘화엄’과 ‘정토’ 즉 삼문수업인 참선문과 강학문과 염불문에 의해 불교를 이해해 왔다. 여기의 ‘신주’와 ‘화엄’과 ‘정지’(淨地)는 조선후기 경절문과 간경문과 염불문의 삼문수행체계에 상응하는 것이다. 벽암 또한 삼문의 기반이 되는 선법과 화엄과 정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겸비하고 있었다.

가을 9월에 병 기운이 돌아 문도들에게 선업(善業)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라고 하면서 비(碑)를 세우지 못하게 하였다. 경지는 정월 12월에 제자들이 장차 입적하려는 것을 알고 계승을 청하니, 이에 붓대를 쥐고 손수 쓰기를, “대장경 8만의 계(偈)와 염송(拈頌) 30 권이 자리(自利)와 이타(利他)의 두 가지 이로움을 갖추었는데 어찌 따로 계승을 짓겠는가”라고 하고 조용히 입적하였다. 세상에 몸을 맡긴 나이가 86세, 선랍(禪臘)은 72년이다. 함께 받들어 다비하니, 삼남(三南,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승려들이 절에 몰려들고 칠중(七衆)이 골짜기를 메웠다. (3과의) 사리가 튀어나오니 절의 서쪽 기슭의 석종(石鐘)에 봉안하였다.

대사가 불교를 계승한 것은 저 부용 영관(芙蓉靈觀)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임제(臨濟)가 남긴 실마리를 접한 것이다. 부휴와 청허 휴정은 함께 영관을 사사(師事)하였으며, 휴정은 송운(松雲)에게 전하고, 부휴는 벽암에게 전했다고 한다.³⁴⁾

벽암의 행장은 행장의 형식이 그러하듯 그의 전 생애를 밀도 있게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는 임종 시에 제자들의 임종계 청에 대해 “대장경 8만의 계와 염송 30 권이 모두 자리와 이타의 두 가지 이로움을 갖추었는데 어찌 따로 임종계를 짓겠는가?” 라고 반문하며 조용히 입적하였다. 이경석이 찬술한 비문에는 부용 영관의 범맥을 이은 청허 휴정이 사명 송운에게 임제선종을 전하였듯이, 부용 영관의 범맥을 이은 부휴 선수는 벽암 각성에게 임제선종을 전하였다고 적고 있다.

33) 李景奭 撰, 『華嚴寺 碧巖堂 覺性大師碑文』, 이지관 편, 『韓國高僧碑文總集』(서울: 가산연구원출판부, 2000), pp.174~177.

34) 李景奭 撰, 『華嚴寺 碧巖堂 覺性大師碑文』, 權相老 편, 『韓國寺刹史料』 권상(조선총독부, 1911);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권상(서울: 신문관, 1918), pp.248~252; 조선총독부 편, 『朝鮮金石總覽』 권하(서울: 아세아문화사, 1919; 1976), pp.916~920; 李智冠 편, 『한국고승비문총집: 조선조 근현대』(서울: 가산문고, 2002).

벽암이 72년 동안의 수행자로서 보여준 모습은 엄결하면서도 겸허한 삶 자체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스승 부휴를 모시면서 그를 대신해 명나라 장수 이종성(李宗誠)과 해전에 참여해 왜적을 무찌르기도 하였다. 또 그는 인조를 구하기 위해 격문을 돌려 의승군 즉 항마군을 모아 나아가기도 하였다.

이어 벽암은 인조의 항복 이후에는 일본에 사행(使行)으로 낙점되어 교지를 받으러 한양으로 나아가다가 노병(老病)으로 물러나기도 했다.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해온 벽암은 많은 문도들의 참관 속에서 소리 없이 입적하였다.

「화엄사비문」은 벽암의 저술로 『선원집도중결의』(禪源集圖中決疑) 1권, 『간화결의』(看話決疑) 1권, 『석문상의초』(釋門喪儀抄) 1권이 있었다고 전한다. 반면 「법주사비문」은 그의 저술로 『(선원집)도중결의』(圖中決疑), 『참상선지』(參商禪旨) 등이 있었다고 전한다. 「화엄사비문」의 기록에는 없지만 「법주사비문」에 의하면 『참상선지』가 하나 더 있었음이 확인된다.

『선원집도중결의』는 현존하지 않지만 각성의 문인인 처능(處能)이 지은 「사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행장(賜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行狀)」에도 서명이 보인다.³⁵⁾ 아마도 당나라 선사인 규봉 종필의 『선원제전집도중』의 문제점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간화결의』는 백곡(白谷)이 쓴 그의 행장과 정두경(鄭斗卿)이 지은 비문에 보인다. 제목인 ‘선지를 헤아리고 참구한다’는 제목을 옆두에 두면 아마도 ‘간화결의’를 가리킨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³⁶⁾

『석문상의초』는 2권 1책으로 되어 있으며³⁷⁾ 백곡이 쓴 그의 행장과 이경석과 정두경이 쓴 비문 모두에 서명이 실려 있다.³⁸⁾ 이 책의 자서(自序)에 의하면 이것은 인조 14년(1636)에 찬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국 자각(慈覺)대사의 『선원청규』(禪苑清規), 응지(應之)대사의 『오삼집』(五衫集) 및 『석씨요람』(釋氏要覽) 등에 의거하여 당시 승가에 적합하도록 해당 부분을 초출하여 편찬한 것이다. 상편에는 사유(闇維)에 이르기까지의 제반의식이 들어 있고, 하편에는 사유 후의 사리납골 입탑제식에서 제종의 상의에 따르는 문서를 거두어 실고(收載) 있다.³⁹⁾

35) 白谷 處能, 「賜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行狀」, 『大覺登階集』 권2(『한불전』 제8책, pp.329~331).

36)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편,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서울: 동국대출판부, 1976), p.185. 여기서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

37) 虛白 明照도 『僧家儀禮文』(1권)을 남기고 있다.

38) 『釋門喪儀抄』는 2권 1책된 목판본이 동국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다.

39)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p.185.

이처럼 벽암은 중국의 여러 사례들을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의례집을 정비하였다.

『석문상의초』는 1657년(효종 8)에 증광사(證/澄光寺)에서 처능(處能)에 의하여 처음으로 개판(開板)되었고, 1705년(숙종 31)에 증광사에서 중간되었다. 이 책은 당시까지 시대에 맞는 승가(僧家)의 상례가 정돈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정립하기 위하여 편찬하였다.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던 불교의식집인 『선원청규(禪院淸規)』·『석씨요람(釋氏要覽)』 등에 의거하여 당시의 승가에 적합하도록 편찬한 것이다.⁴⁰⁾

상권에서는 승가의 오복제(五服制)를 먼저 밝힌 다음 장지에 이르는 행렬절차와 기물(器物)의 배치, 제전절차(祭筭節次) 등을 밝히고 있다. 하권에서는 사리(舍利)를 탑에 모시고 상례를 치르는 사리입탑법(舍利立塔法)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조문(弔問)의 격식과 범위, 그리고 그에 대한 답서 등을 일일이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각종 의식절차에 따른 제문의 양식을 제례별로 소개하였으며, 끝으로 이와 같은 불교의 상례는 불생불멸의 경지인 열반에 드는 것이며, 죽은 영혼이 그와 같은 열반의 경지에 들도록 하겠다는 뜻을 지닌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 뒤에는 불가의 상례절차인 「다비문(茶毘文)」을 첨부하였다.⁴¹⁾ 이 저술에는 불교(釋門) 집안에서 거행하는 상례의 절차와 의미 등에 대한 벽암의 의례관과 생사관이 투영되어 있다.

이 책은 당시 조선사회가 관혼상제에 대한 유교적 정비를 끝내고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어 불교의 의식에 대한 비판이 매우 심하였을 때, 불교의 상례가 유교의 상례에 버금가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유교의 상례와 대비하기도 하고 일부 절차에는 유교의식을 가미하고 있다. 특히 불교의 상례법에 관한 주석서로 다비(茶毗)의 본뜻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밝혔다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⁴²⁾ 다

40) 한국학중앙연구원 편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41) 한국학중앙연구원 편찬, 위의 책(encykorea.aks.ac.kr).

42) 한국학중앙연구원 편찬, 앞의 책(encykorea.aks.ac.kr, 2018.04.10). 벽암의 『석문상의초』는 거의 동시대 인물인 진일(眞一)이 편집한 『석문가례초』(釋門家禮抄)와 대비된다. 『석문가례초』는 2권 1책의 목판본으로 되어 있다. 권두에 편찬자의 서문과 권말에 경일(敬一)의 발문이 있다. 서문에는 불교의식 중에서 吉禮에 관해서는 많이 다루고 있으나 凶禮에 관해서는 소홀하기 때문에, 불교의 喪禮에 대한 예문을 정립하고자 『석씨요람』(釋氏要覽)과 『선원청규』(禪院淸規) 등을 참조하여 편찬한 것이라고 하였다. 첫 부분에서는 승속오수(僧俗五授)에 관한 내용 및 전물(奠物) 절차를 밝히고 있다. 상권에서는 망인을 대종사·염불인·좌선인·관사인(判事人)·학도인(學道人)·평상인 등으로 나누어 각각 위패 쓰는 방식의 차이와 다비의식절차의 차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의식절차를 밝힘에 있어 단순히 의식문만을 서술하지 않고, 그 절차에 따라 여러 의식을 주재하는 승려들의 소임까지 정해주고 있다. 하권에서는 불교의 상의(喪儀)에 관한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즉, 장(杖)·곡(哭)·행조(行吊)·수조(受吊)·장법(葬法)·사유(闇維: 다비)·사리·입탑(立塔) 등에 관하여 그 의의를

비에 대한 자세한 해명은 상례에 대해 깊이 이해하였던 벽암의 생사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벽암은 당시 불교계의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바로잡기 위해 의례문에 집중하였다. 그가 이런 의례집을 정리했다는 것은 당시의 관혼상제에 대한 유교적 정비에 대한 불교적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벽암이 수행자이자 건축승과 같은 예술승의 품모까지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대내외적 활동의 범주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불교계의 현실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다.

따라서 벽암의 『석문상의집』을 비롯한 『선원(제전집)도중결의』와 『간화결의』 등은 당시 불교계의 현실 속에서 급속히 필요했던 서물들을 집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서물들은 부휴계의 수립과 벽암 등 새로운 문파의 성립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사찰 중수와 산성 수축

1) 사찰 중창과 불경 판각 및 불화 조성

벽암 각성은 일생동안 많은 사찰을 신창하거나 중창하였다. 그는 전란 속에서도 화엄법회 등을 개최하였고 불교의 중흥을 위해 사찰을 새로 짓거나 거듭 수리하였다. 특히 그는 순천 송광사, 완주 송광사, 합천 해인사, 보은 범주사, 구례 화엄사, 하동 쌍계사, 안변 석왕사, 속초 신흥사 등을 중수하여 조선 후기 이래 대한시대에 이르기까지 본사급의 사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오늘날 이들 사찰이 굳건하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벽암의 중수와 법회 등을 통해 그가 수립한 정체성과 그가 확립한 인식들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① 순천 송광사 중수 (1609)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조문법에 대한 절차와 내용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끝으로 상의절차에 따른 각종의 제문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부록으로 「백장화상청규법(百丈和尚淸規法)」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치밀하게 규정된 유교의 예법과 그 절차에 대하여 불교가 어떤 방식으로 불교적 예법을 수행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며, 조선시대 유교와 불교의 상례법을 비교, 연구함에 있어 벽암의 『석문상의초(釋門喪儀抄)』와 더불어 귀중한 문헌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마멸상태가 심하여 자세한 판독이 어렵다.

신라 말에 혜린(慧璘)이 창건했다고 전하는 송광사는 한동안 폐사된 이래 고려 인종 때 석조(釋照)가 중창을 준비했으나 완공하지 못하고 입적한 이래 폐사의 지경에 있었다. 고려 신종 때 보조 지눌이 이곳으로 정혜사(定慧社)를 옮겨오면서 사격이 번창하였다. 이후 16 국사와 2 왕사를 배출하여 호남 제일의 사찰로 자리를 잡았다. 이후 중창을 거듭하면서 사세를 유지해 왔다.

선조 25년(1592)에 왜군이 쳐들어온 임진왜란과 재차 쳐들어온 정유재란(1595)으로 수각(水閣)과 임경당(臨鏡堂), 보조암(普照庵), 천자암(天子庵) 등이 소실되었다. 왜군의 노략질을 견디다 못한 승려들이 절을 떠나 한때나마 송광사는 폐사되다시피 하였다. 이에 승려 응선(應善)이 불탄 건물을 중수한 뒤 지리산에 머물던 부휴 선수에게 이곳에 머물기를 청하였다.

광해군 1년(1609)에 부휴 선수는 벽암 각성 등 제자 400 명을 거느리고 이곳으로 옮겨와 조전(祖殿)과 동행랑(東行廊), 천왕문 등을 새로 짓고 그 외의 건물도 보수하였다. 이어 600 명의 승려들이 선수를 모시고 동안거를 성대히 치름으로써 근세에 이르는 송광사의 명맥을 부활시켰다.⁴³⁾ 이후 불교 정화(1954~1962) 직전에 해인총림 설립을 위해 초대된 효봉 학눌(曉峰學訥, 1888~1966)의 이주 이래 부휴계의 문도는 맥이 끊어지고 현재는 효봉계가 중심이 되어 있다.

② 완주 송광사 화엄법회 개최 및 중창 (1622)

완주 송광사는 신라 경문왕 때 남종선을 전해온 원적 도의(元寂道義)에 의해 867 년에 창건된 절로 알려져 있다. 그 뒤 폐허된 뒤 이곳을 지나던 고려 중기의 보조 지눌(1158~1210)이 영천(靈泉)의 물을 마신 뒤 이 영천으로 인해 뒷날 큰 절이 세워질 것이라고 여겨 샘 주위에 돌을 쌓아 두었다. 뒷날 제자를 시켜 그 자리에 절을 중창하도록 당부했지만 오랫동안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한다.

조선 후기(1622년)에 이르러 승려 응호(應浩) 등이 이극룡(李極龍)의 시주를 얻어 중창하였다. 그는 절을 중창한 뒤 벽암 각성을 초빙하여 50 일간 화엄법회를 열었다. 이때 전국의 수천 명이 모여들어 법회에 참석하였다. 벽암은 이를 계기로 이 절의 중창을 시작해 인조 14년(1636)에 이르러 대가람으로 변신시켰다.⁴⁴⁾ 벽암은 순천 송광사에 이어 완주 송광사로 이거하여 화엄법회를 성대하게 거행한 인연을 계기로 이 절을 중창하였다.

43) 임석진, 『대승선종 조계산 송광사지』; 이정 편, 『한국불교사찰사전』(서울: 불교시대사, 1996), p.354; 高榮燮(2), 「조계총림 송광사의 수행과 문화」, pp.634~678.

44) 권상로, 『조선사찰사전』(서울: 동국대출판부, 1979).

③ 합천 해인사 중창 (1624)

신라 애장왕 때(800~809) 대가야의 왕자들이었던 순응(順應)과 이정(利貞)이 창건하였다. ‘해인사’(海印寺)라는 사명은 『화엄경』에 나오는 ‘해인삼매’(海印三昧)에서 유래한 것이며 화엄사상을 천명하고자 하는 도량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창건주 순응이 의상(625~702)의 법손이어서 화엄 10 찰의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고려 태조의 복전이었던 희랑(希朗)이 여기서 화엄사상을 펼쳤으며 고려재조판 대장경이 판각된 이래 서울의 지천사(支天寺)를 거쳐 이곳에 봉안되어 오고 있다.⁴⁵⁾ 이후 여러 차례의 중창을 거치며 사격을 유지해 왔다. 벽암 각성은 인조 2년(1624)에 이곳에 머물며 중창에 참여하였다. 이어 그는 팔도도총섭으로 임명받고 남한산성 수축을 지휘하기 위해 이곳을 떠났다.⁴⁶⁾

④ 보은 법주사 중창 (1624)

신라 진흥왕 14년(553)에 의신(義信)이 창건하였다. 금산사를 창건한 진표(眞表)의 제자 영심(永深)이 중창하여 미륵신앙의 중심도량으로 사격을 갖추었다. 이후 고려의 숙종이 아우인 의천(義天)을 위해 이 절에서 『인왕경』 법회를 열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가 이 절의 상환암(上歡庵)에서 기도를 하였고, 세조는 병을 고치기 위해 복천암(福泉庵)에서 법회를 열기도 했다. 이후 법주사는 왕실의 비호를 받으며 8차례의 중수를 거쳐 60 여동의 건물과 70 여개의 암자를 거느린 큰 절이 되었다.

선조 25년(1592)에 일어난 임진왜란 때 전소되었고 인조 2년(1624)에 벽암이 이곳에 머물며 중창하였다. 벽암은 대웅전, 극락전, 원통보전 등을 비롯한 많은 전각을 신창하거나 중창하였다. 이 중 대웅전은 벽암이 건립한 61 척의 대규모 건물이며, 무량사 극락전, 화엄사 각황전 등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불전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내부에는 비로자나불을 중앙에 모시고 좌우에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이 봉안되어 있다. 이들 모두는 각성이 중창할 때 조성한 것이다.⁴⁷⁾ 이처럼 벽암의 고향인 보은 법주사에 그의 자취가 유독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주목된다.

⑤ 구례 화엄사 중수 (1630)

신라 경덕왕 때(742~765) 연기(緣起)가 창건하였다. 황룡사 승려였던 연기는 경덕왕 13년

45) 李能和, 『조선불교통사』(서울: 신문관, 1918).

46) 高榮燮(2), 「해인강원-해인사 승가대학(1900~2009)의 역사와 문화」, pp. 402~440.

47) 『한국의 사찰5 - 법주사』(서울: 한국불교연구원; 일지사, 1975); 이정 편, 『한국불교 사찰사전』(서울: 불교시대사, 1996), pp.222~223.

(754)부터 『화엄경』 사경을 만들기 시작하여 이듬해 2월에 완성하였다고 전한다. 이후 해인사에서 희랑(希朗)과 쌍벽을 이루던 화엄학승 관혜(觀惠)가 화엄사를 중심으로 학파를 형성하였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여러 차례 중창을 거쳐 사격을 유지해 왔으나 임진왜란(1592)의 병화로 완전히 불탔다.

이에 벽암 각성이 인조 8년(1630)에 중건을 시작하여 인조 14년(1636)에 대웅전을 비롯한 약간의 건물을 건립하였다. 이듬해에는 선종대가람(禪宗大伽藍)으로 승격하였다. 숙종 28년(1702)년에는 벽암의 뜻을 이어받은 계과 성능(桂坡性能)이 장륙전(丈六殿)을 중건하자 숙종이 이를 각황전(覺皇殿)이라 사액하고 선종양종대가람(禪教宗兩大伽藍)으로 사격을 더욱 높여 주었다.⁴⁸⁾

⑥ 하동 쌍계사 중수 (1640)

신라 성덕왕 22년(723)에 의상의 제자인 삼법(三法)이 옥천사(玉泉寺)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다. 이후 진감 혜소(眞鑑慧炤)가 중국에서 차의 종자를 가져와 절 주위에 심고 대가람으로 중창하였다. 정강왕 1년(886)에 쌍계사로 사명을 바꾼 이래 여러 차례의 중창을 거쳐 사격을 유지하였다. 임진왜란(1592) 때 소실된 것을 벽암 각성이 인조 10년(1632)에 중창을 시작하여 인조 18년(1640)에 완수하였다.⁴⁹⁾

⑦ 안변 설봉산 석왕사 중건 (1642~1644)

벽암은 강원도 안변부 설봉산 석왕사의 중건에도 관여를 하여 불사를 성공리에 완수하였다. 「함월해원화상후발」에는 석왕사 화재와 중건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다.

승정(崇禎) 기원후 신사년에 화재가 있었다. 벽암 각성대사가 재물을 모아 중건하였다. 그 역사를 임오년에 시작하여 갑신년에 마쳤다. 그 뒤로 임궁(琳宮)과 보전(寶殿)이 산골에 즐비하고 푸른 기와 푸른 벽돌이 시내와 못에 번쩍었으니, 선거(禪居)의 웅장함이 극치에 달했다. 성조(聖朝)가 친필을 한번 휘둘러 탕진(蕩盡)된 것을 홀로 보완하시니, 천신(天神)과 지령(地靈)이 아끼고 두호해서 그렇게 했던가?⁵⁰⁾

48) 이기백, 「신라 경덕왕대 화엄경 사경 관여자에 대한 고찰」, 『역사학보』 제83집, 한국역사학회, 1979.

49) 권상로, 『한국사찰전서』(서울: 동국대출판부, 1979).

50) 李能和, 「涵月海源(1691~1770)和尚後跋」, 『朝鮮佛教通史』 권하.

고려 말 건국의 계기를 준 무학 자초(無學自超, 1327~1405)의 해몽이 이루어진 석왕사는 태조 이성계와 깊은 인연이 있던 큰 사찰이었다. 이후 왕실의 각별한 관심 아래 최고의 사격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승정 기원(1628) 후 신사년(1641)에 (석왕사의) 화재가 났다. 이에 벽암은 각종 재물을 모아 임오년(1642)에 착수하여 갑오년(1644)에 마쳤다. 이 불사 이후 석왕사는 사격을 되찾았다. 벽암은 남쪽의 하동 쌍계사 중수를 마치고 다시 북쪽의 안변 석왕사까지 올라가 불사를 완수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⑧ 속초 설악산 신흥사 중수 (1649~1651)

설악산 신흥사는 신라 진덕여왕 6년(652)에 자장이 창건하여 향성사라고 했으며 구층탑을 만들어 불사리를 봉안하였다. 당시 계조암(繼祖庵)과 능인암((能仁庵)도 함께 지었다고 한다. 이후 폐허가 된 것을 의상이 능인암 터로 옮겨 선정사(禪定寺)라고 고쳤다. 이후 1 천년 가까이 번창했으나 조선 선조 25년(1592)의 임진왜란 때 구층탑이 파괴되었고, 인조 20년(1644)에는 화재로 절이 완전히 타버렸다.

승려 운서(雲瑞) 등이 중창을 발원하던 중 어느 날 운서 등이 절의 세 승려 모두가 다 같이 소림암(小林庵)에 나타난 신인(神人)이 “이곳에 절을 지으면 수만 년이 가도 3 재(災)가 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주는 꿈을 꾸고 선정사 옛터 아래쪽 약 10 리 지점에 다시 절을 짓고 신흥사(神興寺)라고 하였다. 그 뒤 대웅전을 건립(1647)하였다.

근래의 연구에 의하면 벽암은 신흥사 중창불사를 진두지휘하여 극락보전과 명부전을 중창하고 불상과 불화 등의 조성에 그의 휘하 전라도 장인들을 동원하여 불사를 이끌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順治八年 辛卯八月 十九日

證明金剛山法祖 智異山 碧巖堂覺性

造成畫員秩 無染」道佑」海丁」德明」處常」性峯」元哲」

畫成畫員秩 成倫」崇徵」信旭」玄談」得天”

순치 8년은 청나라 세조 8년(1651)이며 이 해에 벽암은 사명대사의 제자인 금강산의 ‘법조’(法祖)와 함께 이 불상 조성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벽암이 무염 일파를 계속 지도하기 때문에 무염 등은 원래부터 각성의 법제자로 이해되며 각성의 문도로 보인다. 벽암은 아마도 전라도 휘하의 문도들인 건축장들도 조각승과 화승들과 함께 데리고 와서 극락보전 등을 조성했다고 생각된다.⁵¹⁾

그렇다면 무염 이외의 도우, 해정, 덕명, 처상, 성잠, 원철 등은 벽암의 문도들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성륜, 승징, 신옥, 현담, 득천도 벽암과 관련이 있는 문도들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나아가 벽암은 신라의 건축승으로 널리 알려진 '양지'와 같은 건축승의 수장 역할도 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가 사찰 중창과 산성 축성에 평생을 바쳤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는 장인들도 지도할 만한 예술적 안목을 지닌 예술승의 면모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벽암은 사명의 제자인 금강산의 법조와 사명의 사제인 편양 언기의 문도인 설악산의 법명과 도오 등과의 각별한 인연으로 초청을 받아 장인들을 지도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불상조성축원문」은 벽암 각성이 신흥사 중창불사의 증명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조성 지도자⁵²⁾였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벽암은 불서 관각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지리산 능인암, 지리산 화엄사, 순천 송광사, 태인 용장사 등에서 불서를 교정(校正), 각자(刻字), 시주, 대시주, 공덕주(功德主), 판질(板秩), 연판(鍊板) 등에 관여하였다.⁵³⁾ 그는 『발심수행장』, 『고봉화상선요』, 『법집별행록절요 병입사기』, 『묘법연화경』, 『대방광원각경약초』, 『부휴당대사집』, 『금강반야바라밀경(오가해)』, 『대불정여래밀인수행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불설광본대장경』(음역), 『석가여래성도기』, 『묘법연화경』 등의 간행 과정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또 『대방광불화엄경소』 변상도의 간기에 의하면 시주질(권 9, 권 38, 권 94), 연화질(권 78, 권 94), 각수질(권 78), 화주(권 21), 교정(권 21, 권 120), 간년(권 21, 권 78), 알선(권 21, 권 50)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성은 괘불 조성불사를 적극 추진하여 제자를 비롯한 다수 화승들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 그가 관여하고 그를 따라 불사에 참여한 제자 등은 경특(瓊特), 성해(性海), 처능(處能), 계원(戒元), 계심(戒心), 삼학(三學), 성혜(性慧), 신행(信行), 쌍휘(雙輝), 응준(應俊), 의민(義敏), 종인(宗印), 지잠(智岑), 묘관(妙觀), 태상(泰祥), 설운(雪雲), 지순(智淳), 해천(海天) 등이다.

이들은 각기 청주 보살사 중수(경특, 1649), 보살사 괘불도(경특, 1649), 안심사 괘불도(성해, 1652), 부여 무량사 아미타불상 및 대세지불상(1650), 비래사 비로자나불상(1650), 군산

51) 문명대, 「무염파(無染派) 목불상의 조성과 설악산 신흥사 목아미타불 삼존불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제20호, 한국미술사연구소, 2002.6; 손신영,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고찰」, 『속초 신흥사』(사. 한국미술사연구소, 2015.1)

52) 문명대, 「벽암 각성의 조형 활동과 설악산 신흥사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불상과 그 복장품의 연구」, 『강좌미술사』 제45호, 한국미술사연구소, 2015.12.

53) 박도화, 「벽암 각성의 불경 조성」, 『벽암 각성과 불교미술문화재 조성』(사단법인 한국불교사연구소, 한국미술사학회, 2018), pp.116~167. <표1> 각성이 관여한 불서 목록과 소임 참조.

동국사 석가삼존상(1650), 영광 불갑사 석가삼존불 및 나한상(1706), 안심사 괘불도(처능, 1652), 완주 송광사 삼세불상(1641), 서울 봉은사 삼세불상(1651), 곡성 도림사 아미타불좌상(1665), 고흥 송광암 아미타불좌상(1680), 법주사 팔상전 재건공사 및 팔상전 사리구(1626), 화엄사 영산회괘불도(계원, 1653), 비암사 괘불도(계원, 1657), 법주사 대웅대광명전 삼신불상(1626), 구례 화엄사 삼신불좌상(1636), 법주사 승정 9 년명 범종(1636), 화엄사 대웅전 법당(1636), 완주 송광사 개창불사(1636), 군산 동국사 석가삼존상 및 아난존자상(1650), 완주 대원사 삼세불상, 화엄사 영산회괘불도(계심, 1653), 서울 봉은사 삼세불(1651), 화엄사 영산회괘불도(삼학, 1653), 화엄사 영산회괘불도(성혜, 1653), 완주 송광사 개창불사(1636), 화엄사 영산회괘불도(신행, 1653), 강진 옥련사 석가불좌상(1684), 화엄사 영산회괘불도(쌍취, 1653), 곡성 도림사 아미타불좌상(1653), 화엄사 영산회괘불도(응준, 1653), 담양 호국사 아미타불좌상(1660), 화엄사 영산회괘불도(의민, 1653), 화엄사 영산회괘불도(종인, 1653), 서울 지장암 비로자나불상(1622), 여수 흥국사 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1648), 운문사 대웅보전 재건불사(1622), 마곡사 범종(1654), 화엄사 영산회괘불도(지잠, 1653), 영수사 괘불도(묘관, 1653), 영광 불갑사 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1653), 영수사 괘불도(태상, 1653), 구례 화엄사 삼신불좌상(1636), 광주 덕림사 지장보살좌상 및 도명존자입상(1680), 광주 덕림사 지장보살좌상 및 도명존자입상(1680), 비암사 괘불도(설운, 1657), 비암사 괘불도(지순, 1657), 완주 송광사 삼세불상(1641), 해남 도장사 석가삼존불좌상(1648), 여수 흥국사 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1648), 화엄사 벽암대사비 음기(1663), 곡성 도림사 아미타불좌상(1665), 비암사 괘불도(해천, 1657), 군산 동국사 석가삼존상(1650) 등⁵⁴⁾의 불사에 시주, 별좌, 인권, 후추시주, 황금대시주, 전주지, 시주, 공양주 등으로 동참했다.

이들 불사에 동참한 승려들과 벽암의 관계는 매우 긴밀한 것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그의 제자이거나 그의 영향 아래 있었던 승려들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국에 걸쳐 있는 이들의 활동과 역할을 통해 조선 후기 부휴계의 벽암문파가 지니고 있었던 불교사적 지위와 위상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벽암은 선사와 강사뿐만 아니라 불사와 관각에도 능했던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인물이었다.

2) 남한산성과 적상산성의 수축

54) 김정희, 「벽암 각성의 불화 조성」, 『벽암 각성과 불교미술문화재 조성』(사단법인 한국불교사연구소, 한국미술사학회, 2018), pp.108~111. <표3> 괘불 조성불사에 동참한 승려들의 소임과 각성과의 관계 참조.

① 남한산성 축성 (1624)

벽암 각성은 조정에서 승려들에게 남한산성을 쌓게 했을 때 불교의 팔도도총섭이 되어 남한산성 축성의 역사(役事)를 감독하여 3년 만에 수축(修築)을 완수하였다. 그는 팔도도총섭으로서 전국의 사찰을 통할하면서 산성 안에 있는 9개 사찰 중 특히 한흥사(漢興寺)와 흥국사(興國寺)를 건립하였다. 벽암은 광주목사 유림(柳琳)의 지휘 감독 아래 관군과 승군을 동원하여 행궁(行宮)과 객관(客館)을 짓기도 하였다.

또 총융사(摠戎使) 이서(李曙)가 성역을 담당하여 남한산성 성벽의 수축공사를 할 때 그를 보좌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처럼 축성을 예정보다 일찍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벽암의 주도적인 리더와 승병들의 호응에 의해서였다. 이러한 공으로 인하여 그는 인조로부터 ‘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라는 호를 내려 받았다.⁵⁵⁾

② 적상산성 수축 (1640)과 적상산 사고 보호 (1641)

조선 정부는 역사를 기록한 실록을 편찬한 뒤 전란을 피해 전국의 네 곳에 사고(史庫)를 만들어 보관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네 곳으로 분산해 서울의 춘추관 사고, 충주 사고, 성주 사고, 전주 사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임진왜란으로 네 곳의 사고 중 세 곳의 사고가 불에 타버렸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사고 네 곳 중 유일하게 불타지 않은 전주 사고(전주시 풍남동 慶基殿)의 『조선왕조실록』을 저본으로 다시 네 본을 만들어 초기에는 오대산, 태백산, 마니산, 묘향산의 네 곳에 사고를 두었다.⁵⁶⁾ 정부는 승군들에게 사고의 수호를 위한 부역도 담당시켰다. 사각(史閣) 수호 즉 사고(史庫)의 보호와 제찰(諸刹)의 정리 즉 여러 사찰을 바로 잡는 것은 전국 승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승풍(僧風) 규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도총섭은 이를 위해 각 도의 승직인 도승통 아래에 도내 각 사찰의 승풍을 바로잡기 위한 규정소(糾正所)를 두었다. 그리고 승군을 총괄하는 도총섭은 관내의 사찰들과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승풍을 바로 잡기[糾正]도 하였다. 승군은 “들어가서는 사각(史閣)을 수호하고[入則守護史閣] 나아가서는 여러 사찰을 바로 잡는[出則釐正諸刹]” 것이 임무였다.⁵⁷⁾

중기의 인조 대에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난 뒤에는 사고의 보존을 위해 마니산 사고를 정족산으로, 묘향산 사고를 적상산으로 옮겨 갔다. 그리고 팔도를 총괄하는 총섭은 이들 사고를

55) 李景奭, 「華嚴寺 碧巖堂 覺性大師碑文」, 앞의 책.

56) 高榮燮(f), 「조선 후기 승군제도의 불교사적 의미」, 앞의 책.

57) 한국사지총서편찬위원회, 『傳燈寺本末史誌』(아세아문화사, 1978), p.48. 이후에는 태백산(경북 봉화), 오대산(강원 평창), 정족산(경기 강화), 적성산(전북 무주)에 보관하였다.

인근 사찰에 주둔하는 승군에게 수호하게 하였다. 강릉권역에 자리한 오대산 사고는 월정사의 승군이, 봉화의 태백산 사고는 각화사의 승군이 수호하게 하였다. 또 강화의 정족산 사고는 전등사의 승군이, 무주의 적상산 사고는 안국사의 승군이 수호하게 하였다. 이들 네 곳에는 20세기 초까지 보존하고 있었다.⁵⁸⁾

벽암은 쌍계사를 중수한 뒤 8월에 규정도총섭에 임명되어 적상산성의 축성 감독과 사고 보호를 지휘하였다. 그는 사고(史庫)를 보존하기 위해 산성 수축을 감독하고 사고를 보호 임무를 무사히 완수하였다. 그리하여 불교의 대사회적 존재감을 극대화시켰다. 이처럼 그는 평생을 쉴 새 없이 불사에 헌신하였고 전란의 참여와 산성의 축성 등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불교 지성의 모습으로서 불교의 대사회적 존재감을 확장시켰다.

벽암 이후 북한산성 도총섭을 역임하였던 선암사의 호암 약휴(護巖若休, 1664~1754)는 선암사에 수반 규정소, 금구 금산사를 우도(右道) 규정소, 광양 옥룡사를 좌도(左道) 규정소로 정한 뒤 간사승(幹事僧)을 두고 승려 규정 업무를 수행하였다.⁵⁹⁾ 이러한 규정소의 시설과 제도적 유지 또한 도총섭으로서 벽암이 쌓아놓은 불교의 대사회적 존재감 확보에 의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철학의 수립과 사상의 전개

1) 철학의 수립

벽암은 「화엄사비문」에 의하면 『선원집도중결의』(禪源集圖中決疑) 1권, 『간화결의』(看話決疑) 1권, 『석문상의초』(釋門喪儀抄) 1권을 지었다고 한다. 반면 「법주사비문」에 의하면 그는 『선원제전집』도중결의(圖中決疑), 『참상선지』(參商禪旨)를 지었다고 하므로 그의 전체 저술은 3종으로 추정된다.⁶⁰⁾ 하지만 현존하는 저술은 『석문상의초』 뿐이어서 그의 철

58) 조선 총독부는 오대산 사고의 『조선왕조실록』을 일본으로 옮겨가 동경대학에 보존하고 있다가 한국의 해외반출 문화재 반환운동본부의 지속적 요청에 의해 돌려주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

59) 이봉춘, 「조선불교 도총섭 제도와 그 성격」, 『사명당 유정』(지식산업사, 2000); 이종수, 「조선후기의 승군제도와 그 활동」,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2).

60)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편, 『한국불교찬술문헌총서』(서울: 동국대출판부, 1976), pp.184~185.

학과 사상을 조명하기가 쉽지 않다.

벽암은 평소애 스스로 세 가지 잠언(箴言)을 지어 도제(徒弟)들을 경계시켰다. 이것은 불교의 삼업(三業) 즉 신구의(身口意) 삼업을 바르게 하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이루는 신구의 삼업은 불교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척도가 된다. 몸으로 짓는 세 가지(殺盜淫), 말로 짓는 네 가지(惡口/兩舌/妄語/綺語),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貪瞋癡)를 아우른 10업은 ‘금지’의 행위가 아니라 ‘권장’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가) 생각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思不妄]
- 나)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라[面不愧]
- 다) 허리를 구부리지 않게 하라[腰不屈]

첫째, 생각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조항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삼독심의 생각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 망령된다는 것은 중도의 지혜를 깨뜨려 균형감각을 잃어버린 것을 가리킨다. 수행자는 마땅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심을 소멸시켜야 열반에 이르는 것처럼 불제자는 마땅히 생각을 망령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라는 조항은 악한 말, 이간질, 욕지거리, 허황된 말로 부끄럽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수행자는 늘 남을 향한 선한 말, 한결같은 말, 고운 말, 진솔한 말을 하면서 청정한 말씨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허리를 구부리지 않게 하라는 조항은 살아있는 것을 죽이거나, 주지 않는 것을 가지거나, 성적 비행을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구부리지 말라는 것은 늘 바른 자세로 바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고 굴레에 갇혀있는 것을 살려서 풀어주며,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며, 성적인 비행을 저지르지 말고 맑고 깨끗한 범행을 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잠언은 벽암의 기본철학이자 사교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벽암은 제자들에게 당시 불교계의 현실처럼 교문과 선지가 둘이 아님을 숙지시키고 있다. 그는 교법을 담고 있는 대장경과 선지를 담고 있는 『선문염송』이 자리와 이타를 겸비하고 있다고 환기시킨다. 이어서 벽암은 마지막 임종계로서 살아있는 활구를 남기고 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미 우리가 보았던 대장경과 『선문염송』에 이미 다 갖춰져 있어 더하고 뺄 것도 없으므로 별도로 계송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벽암의 임종계는 그의 살림살이를 잘 담아내고 있다. 여기에는 교법과 선법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그의 가풍이 잘 드러나 있다. 벽암이 남긴 저술 이름, 즉 화엄가이자 선가였던

규봉 종말의 『선원제전집』에 대한 『도중결의』나, 보조 지눌의 저술이었던 『간화결의론』을 연상케 하는 『간화결의』는 모두 ‘결의’(決疑)로 마무리되고 있다. 그가 붙인 ‘결의’ 즉 ‘의단을 해결한다’는 것처럼 그는 선교 일원 또는 선교 일치 혹은 교선일치(敎禪一致)⁶¹⁾적 가풍을 보여주고 있다.

대장경 8 만의 계(偈)와

염송(拈頌) 30 권이

자리(自利)와 이타(利他)의 두 가지 이로움을 갖추었는데

어찌 따로 계송을 짓겠는가”⁶²⁾

벽암은 대장경의 8 만 계와 선문염송 30 권이 모두 자리와 이타의 두 가지 이로움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 이것을 떠난 계송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가풍은 보조 지눌 이래의 선교일원(禪敎一元), 청허 휴정 이래의 부휴 선수를 잇는 ‘사교입선’(捨敎入禪) 즉 선 중심의 선교 통합의 가풍⁶³⁾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청허계의 선 중심의 선교 통합의 가풍을 이어가면서도 부휴계는 교법을 소홀히 하지 않는 가풍을 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선법과 교법의 겸수의 가풍은 이후 선과 교의 우위나 열위의 잣대가 없지 않지만 선지와 교문은 둘 모두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한국불교의 가풍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2) 사상의 전개

조선조는 유교를 ‘정교’(正敎) 혹은 ‘정학’(正學)으로 표방하고 유교의 지혜를 빌려 통치에 원용하려는 ‘국가유교 시대’였다. 이 때문에 종래까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았던 국가불교 시대와 달리 불교계는 ‘자립’(自立) 혹은 ‘자생’(自生) 불교의 터전을 일구지 않으면 아니되었다.⁶⁴⁾ 자립 또는 자생 불교 시대에는 경제권과 생활권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문화권 등을 스

61) 여기서의 敎禪一致는 ‘主敎從禪’와 같은 主從 혹은 愚劣의 의미가 아니라 교와 선의 一致라는 均衡 또는 並進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62) 李景奭 撰, 「華嚴寺 碧巖堂 覺性大師碑文」, 이지관 편, 『韓國高僧碑文總集』(서울: 가산연구원출판부, 2000), pp.174~177.

63) 高榮燮(i), 「청허 휴정의 禪敎 이해」, 『불교학보』 제78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7.

64) 高榮燮(1), 『한국불학사: 조선시대편』(연기사, 2005). 필자는 여기서 조선조 불교의 성격을

스로 확보해야만 존립할 수 있었다.⁶⁵⁾

그렇다면 당시의 의승군들은 왜 ‘지계의 원칙을 버리거나[捨戒] 초월하면서[越戒⁶⁶⁾]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을까? 사계의 법은 계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곧장 그 자리에서 “계를 버렸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을 일컫는다. 『율장』에서는 비구가 비구생활을 그만두고 싶을 때에 이제 더 이상 수행할 의지가 없음을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함으로써 사계(sikkham paccakkhātā)가 성립된다⁶⁷⁾고 하였다. 또 『율장』의 「건도부」에서는 승가의 지도자에게 이러한 ‘사계’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살생과 음행 등의 범계를 벗어난 비구의 지도자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⁶⁸⁾

이처럼 당시 일부에서 ‘계를 버렸다[捨戒⁶⁹⁾] 또는 ‘계를 뛰어 넘는다[越戒]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승군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⁷⁰⁾ 그들이 월계까지 하면서 지켜내고자 했던 ‘국’(國)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국가’였을까, 아니면 ‘민’(民)이었을까? 아니면 ‘국가’와 ‘민’ 모두였을까? 결과적으로 조선시대 의승군들은 임진왜란(1592)/정유재란(1597)과 정묘호란(1627)/병자호란(1636) 동안에 국가와 민을 위하여 전쟁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왜적을 물리쳤다.

벽암은 국난에 직면하면서 실천적 지성인으로서 살고자 하였다. 그는 나라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출가사문은 어떠한가 하는가를 고뇌하였다. 이 때문에 벽암은 국가불교의 호법을 넘어 참여불교의 호국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남한산성 축성과 사원 중창 등과 같

국가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스스로 선 ‘自立’ 혹은 ‘自生’ 불교로 파악하였다.

65) 高榮燮(e), 「국가불교의 ‘호법’과 참여불교의 ‘호국」, 『불교학보』 제64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3.

66) 李智冠 編, 「海南大興寺清虛堂休靜大師碑文」, 『韓國高僧碑文總集: 朝鮮朝·近現代』(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0), p.61.

67) 『律藏』(Vinaya III, p.24). 이러한 ‘捨戒’는 한국 승군들의 ‘越戒’ 즉 지계의 계율을 넘어서면서도 애국, 애족, 애민하고자 했던 부분과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高榮燮(a), 「국가불교의 호법과 참여불교의 호국」, 『불교학보』 제61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3.12.

68) 이자랑, 「『율장』 「건도부」 분석에 의한 승가의 지도자상 정립」, 『인도철학』 제32집, 인도철학회, 2011, p.229, 각주 160 참고; 정승석, 「호국불교의 인도적 연원」, 『대각사상』 제31집, 대각사상연구원, 2018.12.

69) 高榮燮(j), 「한국 승군의 역사와 성격」, 『문학 사학 철학』 제57집, 대발해동양학한국학연구원 한국불교사연구소, 2019.6.

70) 중국에서 수행자는 오전에는 공양을 하지만 午後 不食時에는 藥石 혹은 藥果를 공양 대응으로 하였다.

은 국가의 토목공사와 교단의 중흥불사에 이 땅의 백성이자 이 땅의 주인이라는 주체적인 인식 속에서 출전하였다.

우리도 왕의 백성(王民)이며 더욱이 보제(普濟)를 종(宗)으로 삼고 있다. 국사(國事)가 위급하니 차마 좌시할 수 없다⁷¹⁾

벽암은 승려로서 왕의 백성(王民)이라는 인식이 분명하였다. 동시에 출가자는 ‘보제’ 즉 ‘널리 중생들을 구제함[普濟]을 본분으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하여 “나라일이 급하니 차마 앉아서만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당시 유자들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백성(王民)으로서 ‘임금과 왕실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근왕’(勤王)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다. 이러한 가치는 암암리에 백성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었다.

하지만 불자들은 ‘근왕’의 이념을 불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왕의 백성’이지만 ‘보제중생’(普濟衆生)이 그들의 본분임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사계’ 혹은 ‘월계’를 통해 호법의 국가불교가 아니라 호국의 참여불교를 제창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임금과 왕실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근왕’뿐만 아니라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기꺼이 ‘사계’(捨戒) 또는 ‘월계’(越戒)조차 감당하려 하였다.

이들의 ‘보제중생’ 즉 ‘널리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발원은 ‘사계’ 혹은 ‘월계’로 인한 크나큰 인과의 감내로 이어졌다. 이러한 인식은 청허·사명/뇌묵/부휴/영규/의엄 등이 구국의 승병으로서 분연히 일어서는 원동력이 되었다. 불자들은 당시의 불교를 국왕 주도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종래의 호법적 국가불교와 달리 국민들에 대한 애민(愛民) 또는 애족(愛族) 혹은 안민(安民)을 실현하려는 호국적 참여불교⁷²⁾로 새롭게 받아들였다.

당시 조선조 국왕들의 불교(정법) 인식은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 때문에 불교계에서는 불자들의 호국적 지향을 통해 불교의 존재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승군은 국왕의 부름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그들 스스로 애국과 애민과 애족을 위해 스스로 참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출가자의 목숨과도 같은 지계의 원칙을 뛰어넘는 사계(捨戒)와 월계(越戒)의 인과를 감수하면서까지 불자로서의 역사의식과 시문으로서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역사 속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한 ‘참여불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⁷³⁾

71) 處能, 「賜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行狀」, 『大覺登階集』 권2(『韓國佛教全書』 제8책, pp.329~331)

72) 여기서 문제는 호법의 ‘主體’를 누구로 보고 호국의 ‘意圖’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다.

벽암 또한 애민 또는 애족 혹은 안민을 실현하려는 마음으로 출전하였고, 국가의 토목공사인 산성의 축성과 사고의 수호를 완수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전란의 출전과 산성의 수축 그리고 사고의 수호와 사찰의 중창과 같은 현실에 참여하는 불교의 '호국'과 임금이 국가의 보존을 위하여 불교를 보호하는 '호법'이 들일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벽암에게 국가불교의 호법과 참여불교의 호국이 만날 수 있는 지점 역시 이러한 애민과 애족과 안민 정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역사인식은 애민과 애족과 안민을 실현하려는 호국적 참여불교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5. 조선후기 부휴계의 위상 확립

1) 청허계와 부휴계의 공존 모색

조선불교의 선택은 여말 이래 태고 보우(太古普愚)-환암 혼수(幻庵混脩)의 법을 이은 구곡 각운(龜谷覺雲)-벽계 정심(碧溪正心)-벽송 지엄(碧松智嚴)-부용 영관(芙蓉靈觀)-청허 휴정(淸虛休靜)/부휴 선수(浮休善修)로 이어져 왔다. 특히 청허 문중은 사명 유정(四溟惟政)/정관 일선(靜觀一禪)/편양 언기(鞭羊彦機)/소요 태능(逍遙太能)의 4대 문파와 청허와 함께 부용 영관의 문하였던 부휴가 말년에 청허의 문하가 되면서 '서산종'(西山宗)으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확보하였다.

조선 중후기에 이르러 정계의 청허계 4대문파와 달리 부휴계는 방계로서 자리하였다. 본디 부용 영관 문하의 사형이었던 청허였지만 말년에 부휴가 청허의 문하로 들어가면서 부휴계는 청허계 문하의 방계로서 7대 문파를 형성하였다. 부휴계는 선 중심의 선교 통합을 주장하는 청허계의 입장을 따르고 임제 법통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청허계처럼 선 우위의 선 중심으로만 나아가지 않고 교의 겸수(兼修) 혹은 겸용(兼容)의 입장을 취하였다.⁷⁴⁾이것은 '교법'에 대한 보다 유연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청허계의 최대 문파인 편양파는 17세기까지 묘향산과 북방을 주요 근거지로 삼았다. 18세기 이후 이들의 주류가 호남을 비롯한 남방에 대거 진출하여 그 세력이 전국적 범위에 걸쳐

73) 高榮燮(e), 앞의 글, 앞의 책.

74) 高榮燮(h), 「浮休 善修계의 선사상과 법통인식」, 『한국불교사연구』 제4호, 한국불교사학회 한국불교사연구소, 2014.2; 高榮燮(4), 앞의 책, pp.74~121.

있었다.⁷⁵⁾ 이와 달리 방계였던 부휴계는 호남을 주요 근거지로 삼았고 삼남 일대에 분포하였다. 이들은 임진왜란 때 큰 피해를 입은 송광사, 화엄사, 쌍계사, 법주사 등 호남 및 호서 일대 거찰의 중창을 주도하면서 이들 사찰에 부휴계의 영향력을 형성하였다. 특히 조계산 송광사에는 적전(嫡傳)을 이은 이들의 탐이 모두 세워지면서 계파 본산으로서의 위상을 가졌다.⁷⁶⁾

조선 중기와 후기에 이르러 보학(譜學)의 대두와 맞물려 형성된 청허계의 범통인식은 부휴계의 범통인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부휴는 스승 청허의 사교입선(捨教入禪) 즉 선을 주로 하고 교를 종으로 하는[主教從禪] 선 중심의 선교 통합의 정신을 계승하였다. 하지만 그는 선과 교의 겸수(兼修) 혹은 겸용(兼容)의 입장에서 있었다.

부휴계는 청허계 편양 언기 등의 임제·태고법통설을 수용하면서도 교산 허균(喬山許筠)의 영명·지눌·나옹법통설의 접점을 열어두고 있었다. 이것은 선사상에서는 보조선을 계승하면서도 법통설에서는 임제·태고법통설을 이어가려는 이중적 구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⁷⁷⁾. 벽암 역시 임제·태고법통설을 계승하면서도 스승 부휴의 선교 겸수의 정신과 보조선 사상을 이어가려고 하였다.

벽암이 당나라 선사인 규봉 종필의 『선원(제전집)도중결의』의 문제점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나 ‘선지를 헤아리고 참구한다’는 『간화결의』(『참상선지』와 同書?)를 지었다는 사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들 저술들의 제목에서 ‘결의’ 즉 ‘의심을 해결한다’고 언표하고 있고, 내용에서 교와 선의 겸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벽암이 보여준 행보는 정계인 청허계의 방계임에도 불구하고 부휴계의 대표적 문파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동력이었다.

그리하여 부휴의 문도로 이루어진 부휴계는 벽암 각성(碧巖覺性)/ 뇌정 응묵(雷靜應默)/ 대가 희옥(待價希玉)/ 송계 성현(松溪聖賢)/ 환적 인문(幻寂印文)/ 포허 담수(抱虛淡水)/ 고한 희언(孤閑熙彦) 등의 7대 문파를 형성하였다. 부휴계가 문파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부휴의 제자들의 활발한 대내외적 활동에 힘입은 것이었다. 특히 벽암 문파의 활동은 이후 부휴계를 지속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송광사와 화엄사는 부휴계를 잇는 벽암 문파의 거점 사찰이었다. 이후 부휴계와 벽암 문파는 이들 사찰을 거점으로 두면서 청허계와 공존을 모색할 수 있었다.

75) 김용태(c), 「조선후기 불교의 臨濟法統과 教學傳統」,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논문의 II-1참조, 2008.

76) 김용태(b), 「浮休系의 계파인식과 普照遺風」, 『보조사상』 제25집, 보조사상연구원, 2006.

77) 高翊晉, 「碧松智嚴의 新資料와 法統問題」, 『불교학보』 제22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85, p.211; 高榮燮(h), 앞의 글, 앞의 책.

2) 부휴계의 주장과 제자 양성

부휴의 문하였던 벽암은 부휴계의 주장으로서 대내외적 활동을 통해 부휴계를 굳건히 자리 잡게 하였다. 벽암은 취미 수초(翠微守初)/ 백곡 처능(白谷處能)을 비롯하여 고운 정특(孤雲挺特)/ 모운 진언(慕雲震言)/ 동림 혜원(東林慧遠)/ 벽천 정현(碧川正玄)/ 침허 율계(枕虛律戒)/ 연화 인옥(蓮華印旭)/ 회은 응준(晦隱應俊) 등 뛰어난 제자를 배출하였다.⁷⁸⁾

벽암의 문하에서 나온 이들 8대 문파들은 그 문풍을 드날려 청허 문하의 정계 4대 문파와 방계 7대 문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조선후기 선맥과 강맥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들 중 특히 취미 수초와 백곡 처능은 벽암 문파를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효종(孝宗)은 보위에 오르기 전에 벽암에게 수찰(手札)을 보내고 예물을 하사하였다. 임금은 즉위하자마자 조정의 논의를 거쳐 벽암에게 총섭(摠攝)의 인장(印章)을 수여하고 적상사각(赤裳史閣)을 지키게 하였고, 그는 여기에서 남쪽 승려들을 교화하고 진승(眞乘)을 널리 펼쳤다.

벽암이 총섭에 머무른 지 얼마 안 되어 이름난 여러 산을 구름처럼 유력하다가 부안(扶安)의 변산(邊山)에 올라가 남해를 굽어보고 방장산(方丈山)의 화엄사(華嚴寺)에 돌아와 머물렀다. 기해년 여름에 효종(孝宗)이 승하하자 그는 제사를 올리고 슬피 울었다.⁷⁹⁾

말년의 벽암은 사천(槎川) 이병연(李秉淵)에게 시 바치는 한 수를 지었다. 여기에는 염부제를 떠나 무심 도인의 삶을 사는 소회가 잘 드러나 있다.

염부제는 어지러워 들리는 것 없어지고
뜻밖에 무심(無心) 되어 산굴 구름 벗어나네.
이 세상이 버린 승려 이 승려도 버린 세상
산신령과 늙은이가 좋은 벗이 되는구나⁸⁰⁾

염부제 세상에서는 시끄러워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뜻밖에 무심 지어 산굴 구름 벗어난다.

78) 金煥泰, 『한국불교사』(서울: 경서원, 1997).

79) 李景奭 撰, 앞의 글, 앞의 책, pp.174~177.

80) 槎川 李秉淵, 「奉呈碧巖大師」,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권하(보려각, 1976). “閻浮擾擾耳無聞, 偶作無心出岵雲, 世既棄僧僧棄世, 后翁槎老好爲群.”

세상의 안중에는 승리가 없고, 승리의 안중에도 세상이 없다. 이제는 세상도 그를 잊고 그도 세상을 잊었다. 다만 그는 후옹으로서 사천노인과 좋은 벗이 되어 있다. 한 때 그는 부휴계의 수장으로 청허계에 맞섰지만 이제는 사천노인과 벗이 되어 노니는 후옹일 뿐이다. 이 시를 음미해 보면 다 내려 놓고 화엄사에서 말년을 보내는 벽암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6. 결어

벽암 각성(1575~1660)은 청허와 부휴의 선 중심의 선교 겸수의 전통을 몸소 실현한 수행자였다. 그는 임란과 병란을 겪으면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모습을 통하여 불교 지성인으로서 풍모를 보여주었다. 벽암은 승군을 이끌고 전란에 참여하였고, 국가의 토목공사인 남한산성과 적상산성 수축을 감당하였다. 또 그는 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사고(史庫)를 수호하였고, 전국의 여러 불교 사찰을 중창하였으며, 불경 판각과 불화 조성을 주도하였다. 이것은 모두 애민과 애족과 안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조선 이전의 ‘타자화된 국가불교의 호법적 지향’과 달리 조선 이후의 ‘주체화된 참여불교의 호국적 지향’을 보여주었다.

벽암은 불교 밖에서 국왕에 의해 실현되는 정법치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호법(護法)과 달리 불교 안에서 불자에 의해 구현되는 실천불교를 주체적으로 움켜 안는 호국(護國)적 참여불교를 실현하였다. 그것은 ‘임금과 왕실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근왕’(勤王)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국왕의 명령에 의해 움직인 것만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국왕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호법적 국가불교와 달리 불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호국적 참여불교였다. 그리하여 벽암은 전란의 시기에 불교 지성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실천적 불교 지성인의 모습으로서 보여주었다.

벽암은 ‘계를 버린다’는 ‘사계’ 혹은 ‘계를 뛰어 넘는다’는 ‘월계’를 선언하고 임란과 병란에 참여하였으며, 사찰 중수와 산성 수축을 하였고,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통하여 불자로서의 정체성과 인식틀을 확고히 세웠다. 이와 같은 일련의 대내외적 활동을 통하여 벽암은 불교계의 대사회적 존재감을 확립하였고, 불교사상가로서 실존적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주목되는 것은 그가 유교를 정교(正敎) 또는 정학(正學)으로 숭상하는 승유억불의 시대 아래서 자립불교와 자생불교를 모색하며 실천적 불교 지성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조선후기 불교계를 주도한 편양 언기가 정계인 청허계의 대를 이은 적전(嫡傳)이었다면, 벽암 각성은 방계인 부휴계의 맏아들인 적전이였다. 벽암은 부휴계 7대 문파의 수장으로서 나머지 6대 문파

와 함께 부휴계를 공고히 하였으며, 700 여명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벽암의 8대 문과는 청허계와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그리하여 부휴계는 청허계가 선(禪)을 주로 하고 교(敎)를 종으로 하는 사교입선(捨敎入禪) 즉 선(禪) 중심의 선교(禪敎) 통합을 모색한 것과 달리 범통설에서는 청허계의 임제·태고범통설을 따르면서도 선사상에서는 보조선을 계승하는 중첩 구조의 모습을 견지하였다. 벽암 각성 또한 이러한 중첩 구조를 계승하면서 선과 교의 겸수(兼修) 혹은 겸용(兼容) 또는 병진(並進)을 지향하면서 보다 유연한 불교인식을 보여주었다.

주제어(Key Words)

호법(protection of Buddhism), 호국(protection of the nation), 근왕(loyalty to the king), 사계(abandoning precepts), 월계(transcending precepts), 선교 겸수(unity of the meditative and doctrinal approaches), 사교입선(entry into meditation after relinquishing doctrine)

〈참고문헌〉

- 『律藏』(Vinaya III, p.24).
- 『인조실록』 권39; 인조 17년 10월 8일(辛卯).
- 『인조실록』 권40. 인조 18년 5월 21일(辛丑).
- 李景奭 撰, 「華嚴寺 碧巖堂 覺性大師碑文」, 權相老 撰, 『韓國寺刹史料』 권상(조선총독부, 1911).
- 白谷 處能, 「賜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行狀」, 『大覺登階集』 권2(『한불전』 제8책, p.329).
- 李能和, 「涵月海源(1691~1770)和尚後跋」, 『朝鮮佛教通史』 권하.
-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권상(서울: 신문관, 1918), pp.248~252.
- 조선총독부 편, 『朝鮮金石總覽』 권하(서울: 아세아문화사, 1919; 1976), pp.916~920.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편, 『한국불교찬술문헌총서』(서울: 동국대출판부, 1976), pp.184~185.
- 槎川 李秉淵, 「奉呈碧巖大師」,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권하(보림각, 1976).
- 한국사지총서편찬위원회, 『傳燈寺本末史誌』(아세아문화사, 1978), p.48.
- 권상로, 『한국사찰전서』(서울: 동국대출판부, 1979).
- 金煥泰, 『한국불교사』(서울: 경서원, 1997).
- 임석진, 『대승선종 조계산 송광사지』; 이정 편, 『한국불교사찰사전』(서울: 불교시대사, 1996), p.354.
- 李智冠 編, 「海南大興寺清虛堂休靜大師碑文」, 『韓國高僧碑文總集: 朝鮮朝·近現代』(가산불교문화연구회, 2000), p.61.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 한명기, 『광혜군: 탁월한 외교정책을 펼친 군주』(서울: 역사비평사, 2000), p.39 참조.
- 高榮燮(1), 『한국불학사: 조선시대편』(연기사, 2005).
- 高榮燮(2), 『한국불교사연구』(서울: 한국학술정보, 2012).
- 高榮燮(3), 『한국불교사탐구』(서울: 박문사, 2015).
- 高榮燮(4), 『한국불교사궁구』 1.2(서울: 씨아이알, 2019).
- 이기백, 「신라 경덕왕대 화엄경 사경 관여자에 대한 고찰」, 『역사학보』 제83집, 한국역사학회, 1979.
- 高翊晉, 「碧松智嚴의 新資料와 法統問題」, 『불교학보』 제22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85, p.211.
- 김갑주, 「남한산성 義僧番錢의 종합적 고찰」, 『불교학보』 제25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89).
- 金龍祚, 「허응당 보우의 불교부흥운동」, 보우사상연구회 편, 『허응당 보우대사연구』(제주: 불사리답, 1993), p.89.
- 이봉춘, 「조선불교 도총섭 제도와 그 성격」, 『사명당유정』(서울: 지식산업사, 2000).
- 문명대, 「무염파(無染派) 목불상의 조성과 설악산 신흥사 목아미타불 삼존불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제20호, 한국미술사연구소, 2002.6.
- 문명대, 「벽암 각성의 조형 활동과 설악산 신흥사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불상과 그 복장품의 연구」, 『강좌미술사』 제45호, 한국미술사연구소, 2015.12.

- 정승석, 「호국불교의 인도적 연원」, 『대각사상』 제31집, 대각사상연구원, 2018.12.
- 김정희, 「벽암 각성의 불화 조성」, 『벽암 각성과 불교미술문화재 조성』(사단법인 한국불교사연구소, 한국미술사학회, 2018), pp.108~111.
- 박도화, 「벽암 각성의 불경 조성」, 『벽암 각성과 불교미술문화재 조성』(사단법인 한국불교사연구소, 한국미술사학회, 2018), pp.116~167.
- 김상영, 「雷默 處英의 생애와 불교사적 위상」, 『불교연구』 제48집, 한국불교연구원, 2018.2.
- 高榮燮(a), 「조계총림 송광사의 수행과 문화」, 『보조사상』 제32집, 보조사상연구원, 2008, pp.634~678.
- 高榮燮(b) 「해인강원-해인사 승가대학(1900~2009)의 역사와 문화」, 『불교학보』 제53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10.
- 高榮燮(c), 「虛應 普雨의 불교 중흥」, 『한국불교학』 제56집, 한국불교학회, 2010.
- 高榮燮(d), 「광해군의 불교인식」, 『한국불교사연구』 제2호, 한국불교사학회 한국불교사연구소, 2012.2, p.253.
- 高榮燮(e), 「국가불교의 ‘호법’과 참여불교의 ‘호국」」, 『불교학보』 제64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3.
- 高榮燮(f), 「조선 후기 승군제도의 불교사적 의미」, 『한국사상과문화』 제72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4.
- 高榮燮(g), 「조선 후기 고승의 비석 건립과 문집 간행」, 『한국불교사연구』 제7호, 한국불교사연구소, 2014.
- 高榮燮(h), 「浮休 善修系의 禪사상과 法統인식」, 『한국불교사연구』 제4호, 한국불교사학회 한국불교사연구소, 2014.
- 高榮燮(i), 「청허 휴정의 禪敎 이해」, 『불교학보』 제78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7.
- 高榮燮(j), 「한국 승군의 역사와 성격」, 『문학 사학 철학』 제57집, 대발해동양학한국학연구원 한국불교사연구소, 2019.6.
- 최연식, 「완주 송광사의 창건 배경 및 조선후기 불교 문파와의 관계」, 『보조사상』 제47집, 보조사상연구원, 2017, pp.132~167.
- 이자량, 「『율장』 「건도부」 분석에 의한 승가의 지도자상 정립」, 『인도철학』 제32집, 인도철학회, 2011, p.229, 각주 160 참고.
- 이종수, 「조선 후기의 승군제도와 그 활동」,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2).
- 김용태(a), 「조선후기 남한산성의 조영과 승군의 활용」, 『한국사상과 문화』 제78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5.
- 김용태(b), 「浮休系의 계파인식과 普照遺風」, 『보조사상』 제25집, 보조사상연구원, 2006.
- 김용태(c), 「조선후기 불교의 臨濟法統과 敎學傳統」,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논문의 II-1참조, 2008.
- 손신영,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고찰」, 『속초 신흥사』(사. 한국미술사연구소, 2015.1).

벽암 각성의 생애와 사상

- 李景奭 撰 「華嚴寺 碧巖堂 覺性大師碑文」을 중심으로

고 영 섭

이 논문은 조선 후기 불교계의 대표적 선사이자 강사였던 벽암 각성(碧巖覺性, 1575~1660)의 생애와 사상을 살핀 것이다. 그는 청허(淸虛)와 부휴(浮休)의 선(禪) 중심의 선교(禪敎) 겸수(兼修)의 전통을 몸소 실천한 수행자였다. 벽암은 임란(壬亂)과 병란(丙亂)을 겪으면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모습을 통하여 불교 지성인의 풍모를 보여주었다. 벽암은 승군을 이끌고 전란에 참여하였고, 국가의 토목공사인 남한산성과 적상산성을 수축하였다. 또 그는 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사고(史庫)를 수호하였고, 전국의 여러 불교 사찰을 중창하였으며, 불경판각과 불화 조성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삶은 모두 애민과 애족과 안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타자화된 국가불교의 호법적 지향'과 달리 '주체화된 참여불교의 호국적 지향'을 보여주었다.

벽암은 불교 밖에서 국왕에 의해 실현되는 정법치국(正法治國)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호법(護法)과 달리 불교 안에서 불자에 의해 구현되는 실천불교를 주체적으로 움켜 안는 호국(護國)적 참여불교를 실현하였다. 그것은 '임금과 왕실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근왕'(勤王)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고, 국왕의 명령에 의해 움직인 것만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국왕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호법적 국가불교와 달리 불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호국적 참여불교였다. 그리하여 벽암은 전란의 시기에 불교 지성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실천적 불교 지성인의 모습으로서 보여주었다.

벽암은 '계를 버린다'는 '사계'(捨戒) 혹은 '계를 뛰어 넘는다'는 '월계'(越戒)를 선언하고 임란과 병란에 참여하였으며, 사찰 중수와 산성 수축을 하였고,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통하여 불자로서의 정체성과 인식틀을 확고히 세웠다. 벽암은 이와 같은 일련의 대내외적 활동을 통하여 불교계의 대사회적 존재감을 확립하였고, 불교사상가로서 실존적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주목되는 것은 유교를 정교(正敎) 또는 정학(正學)으로 숭상하는 송유억불의 시대 아래서 자립불교와 자생불교를 모색하며 실천적 불교 지성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조선 후기 불교계를 주도한 청허계의 편양 언기(鞭羊彦機)가 대를 이은 적전(嫡傳)이었다면, 부휴계는 벽암 각성(碧巖覺性)이 만아들인 적전이었다. 벽암은 부휴계 7대 문과의 수장으로서는

나머지 6 대 문파와 함께 부휴계를 공고히 하였으며, 700 여명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벽암의 8 대 문파는 청허계와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그리하여 부휴계는 청허계가 선(禪)을 주로 하고 교(敎)를 종으로 하는 사교입선(捨敎入禪) 즉 선(禪) 중심의 선교(禪敎) 통합을 모색한 것과 달리 범통설에서는 청허계의 임제·태고법통설을 따르면서도 선사상에서는 보조선을 계승하는 중첩 구조의 모습을 견지하였다. 벽암 각성 또한 이러한 중첩 구조를 계승하면서 선과 교의 겸수(兼修) 혹은 겸용(兼容) 또는 병진(並進)을 지향하면서 보다 유연한 불교인식을 보여주었다.

Byukam Gaksung's Life and Ideology Focusing on the Epitaph of Grand Master Byukamdang Gaksung of Hwaum temple written by Kyungsuk Lee

Young-seop Ko *

This paper examines the life and ideology of Byukam Gaksung (碧巖覺性, 1575~1660), a Seon Master and Buddhist instructor of Korea's late Joseon dynasty. As a Buddhist monk, Byukam practiced under the tradition that promoted the unity of the meditative and doctrinal approaches. During a period that witnessed two wars—the Japanese (1592) and Chinese (1636) invasions—he engaged in an independent and active way of life. He participated in the wars, leading an army of monks, and engag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Namhan and Juksan fortresses. He was also instrumental in guarding the national archive in which were preserved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Byukam rebuilt many of the country's Buddhist temples, and promoted the woodblock printing of Buddhist scriptures and the expression of Buddhist themes in painting. The range of his activities vividly illustrates his love for the nation and its people. In this way, he exemplified Buddhism's determination, as an active religion, to protect the nation and its people, rather than its passivity, as a religion protected by the state.

In this way, Byukam modeled an engaged, active Buddhist practice that protected the nation rather than simply receiving the nation's protection. Of course, not all of his activities prioritized loyalty to the king, and nor did he indiscriminately comply with the king's orders. Rather, his actions were those of an engaged Buddhist who sacrificed himself for the safety of the nation. Thus, Byukam exemplified how a Buddhist philosopher should think and live in an era of war.

Gaksung declared his intentions to abandon or transcend precepts, meaning his intention to suspend his commitment to the religion's precepts for the purpose of

* Professor, Department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Seoul Campus

participating in the wars. In the aftermath of the wars, he rebuilt several Buddhist temples and fortresses, and developed his own philosophy. His activities asserted the presence of Buddhism in contemporary society and the presence of the Buddhist intellectual in the nation. Another noteworthy aspect of his achievements is his defiance of the religious oppression exercised by the government: at the time, the national religion was Confucianism, and Buddhism was suppressed.

During the later years of the Joseon dynasty, there were two major lineages in Buddhism: one was that of Cheongheo and the other was that of Boohyoo. Pyeongyang Ungi (鞭羊彦機) inherited Cheongheo's lineage while Byukam Gaksung inherited Boohyoo's. During Byukam's age, Boohyoo's lineage was composed of seven denominations, including one that was under Byukam's charge. Byukam maintained harmonious relationships with the other six denominations, and developed his own denomination into a group of 700 monks composed of eight sects.

Although,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Buddhism adopted a stance that favored the unity of the meditative and doctrinal approaches, Cheongheo's lineage was somewhat more focused on Seon practices, adopting a stance that promoted entry into Seon after relinquishing doctrine. However, Boohyoo's lineage adopted the traditions of Linji, and Taego, in terms of dharma doctrine, but also embraced Bojo's tradition, in terms of Seon philosophy. Byukam preserved this overlapping structure, which helped him to achieve greater balance in uniting the meditative and doctrinal approaches.

